

제39차 모교 홈커밍데이, 미주동문 참여

축복받은 가을 날씨 속, 관악 버들골에 동문 가족 3,000여 명 모여



【기사: 박수진, 총동창회보 기자】

모교 관악캠퍼스가 자랑하는 녹지 버들골. 가을 하늘만큼 넓고 푸른 이곳이 올해도 한바탕 웃음으로 물들었다. 제39차 서울대학교 홈커밍데이가 열린 지난 10월 21일의 모습이다.

이날 모인 동문 가족은 3,000여 명. 올해 입학·졸업 20·30·40·50·50주년을 맞은 동문들을 특별 초청했다. 예상보다 많은 참석 인원엔 넉넉하게 준비한 점심 도시락이 금세 동나 추가분을 긴급 공수해올 정도였다. 동문 가족과 해외 동문, 교직원 등 '서울대 가족' 모두 가을빛으로 물든 캠퍼스의 너른 품에서 한바탕 쉬어 갔다.

오전 9시 접수를 마치고 교내 걷기와 관악산 등반을 자유로이 즐긴 참석자들은 버들골 잔디밭에 자리를 잡았다. 첫 순서로 본회 신수정 회장이 "축복받은 날씨"라며 동문 가족들을 향해 인사한 후 "오늘 행사를

위해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참석자 수만 큼 많은 3,000여 명의 동문이 총 3억여 원의 지원품과 지원금을 지원했다. 특히 공과대학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에 참여해 동창회에 힘을 불어넣기도 했다.

신 회장은 또 "미주 동문 열아홉 분이 태평양을 건너서 찾아오셨다"며 환영의 박수를 부탁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동문들이 화합하고 모교를 위해 봉사할 수 있을지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의 자문을 구한다"며 "동창회 창립 50주년을 맞는 내년에 꼭 다시 와주시길 바란다. 더 큰 잔치로 여러분을 모실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박찬욱 모교 총장직무대리 교육부총장은 축사에서 "관악에서 학창시절을 보내지 않은 분도, 여기서 공부하신 분도 감회가 깊으실 것"이라며 "모교가 세계 중심대학으로 자리 잡은 것은 각계 동문들의 노력 덕분"

이라고 말했다. "총장 궐위 사태를 우려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총장직무대행 체제는 안정적이며, 새 총장 선출이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하실 것 없다"고도 당부했다.

이날 동문들의 눈길을 끈 풍경이 있었다. 매년 홈커밍데이 최대 경품인 승용차가 올해는 두 대나 버들골에 등장한 것. 신수정 회장이 승용차 한 대를 지원한 데 이어 서정화 명예회장이 또 한 대를 지원했다. 홍라희(응용미술 63-67) 전 리움미술관 관장이 지원한 김치냉장고, 신일산(AMPFRI 14기) 동문이 지원한 탄소침대 등 동문들의 애정이 담긴 푸짐한 경품 덕에 행사가 풍성해졌다.

일정별 행사

【기사: 백옥자 조직국장】

▲ 10월 12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개학 123주년-통합개교 72주년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윤상래 미주동창회 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 10월 16일: 제주도 여행에는 미주 동문 열세 분과 본국 동문 다섯 분이 참가했다. 첫날 협재 해수욕장, 금릉 식물원, 테마파크, 둘째 날 주상절리, 마라도, 용머리 해안, 수목원 테마파크, 셋째 날 성읍민속마을을 방문하며 2박 3일간 제주도의 참모습을 만끽했다.

▲ 10월 21일: 홈커밍데이에는 총장실 방문 및 관악등반대회가 있었다. 오전 9시 30분

미주동문은 박찬욱 부총장으로부터 모교의 미래 계획과 발전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 10시 30분 뒷동산에 펼쳐진 잔치마당엔 자동차 2대와 많은 경품들이 참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신수정 총동창회장님이 미주 동문을 환대했다. 환영한다는 헌수막이 크게 걸려 있어서 큰 인상을 주었다. 또한, 따로 자리도 마련해 주어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다. 남가주 총동창회 이명일 동문께서 선창을 하고 미주 동문 모두 함께 무대로 나가 Back Dancer 역할을 하며 즐거움을 선사했다. (위 사진)

▲ 10월 22일: 서울대 규장각 및 도서관 투어 (뉴잉글랜드 동창회 윤은상 회장 P. 2, 3 기사 참조)

▲ 참여동문

보스톤: 윤상래(수 62) 미주동창회 회장 부부, 윤은상(상 66) 부부, 고일석(보건 69) / **달라스:** 황명규(공 61) 황신자 / **시애틀:** 앤김(미 62) 도널드김 / **메릴랜드:** 이서구(문 62) 이영규, 박인창(농 65) 헬렌 / **남가주:** 조정시(공) 조남욱, 김기형(상 75), 이명일(약), 김창신(문) 남가주 동창회 전총무국장, 백옥자(음 71) 조직국장 / **뉴욕:** 손대홍(미 79) 회장 / **미네소타:** 황효숙(사 65) 회장 / **필라델피아:** 전무식(수 61) 회장 / **오하이오:** 성흥환(수 75) 회장 가족 / **본국동창회:** 공대식(공) 부회장, 류연수(농 67) 부회장, 김순옥(음 73), 김금수(음 76)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제27차 홈커밍데이 행사 미주동문 방문



박찬욱 (사회 72)

개교 72주년 기념사

존경하는 전임 총장님, 이사장님, 총동창회장님, 내외 귀빈 여러분, 서울대학교 가족과 동문 여러분,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성원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오늘 서울대학교는 개교 7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견인하고 세계무대에서 국가를 빛낸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올해 개교기념일을 맞아 세계 30위권 대학으로 성장한 서울대학교의 미래를 생각하기에 앞서 그간의 대학의 역사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1946년 현대적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염원 아래 서울대학교는 1개 대학원과 9개의 단과대학을 통합하여 국립종합대학교로 출범하였습니다. 학문의 기반이 적박했던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성과 학문의 수호자로서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1975년에는 관악캠퍼스에 새로운 타전을 마련하고 명실상부한 종합캠퍼스 시대를 열었습니다.

만년 웅비의 대학 대전이 되기를 기대했던 관악캠퍼스의 시대가 시작된 이래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국가와 사회의 진로를 밝히고 거리의 대학을 넘어 세계의 대학이 되겠다는 소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사회에는 서울대학교가 기득권을 지키려 애쓰고, 우월주의와 특권의식을 내세우며, 지성의 모범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더욱이 차기 총장 선출절차가 완결되지 못해 총장권위 사태에 처한 지금 깊은 반성과 성찰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과도기에 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저는 여느 때와는 달리 무거운 마음으로 개교 기념일을 맞았습니다.

미국의 교육철학자 존 듀이는 한 나라의 상태를 알려면 그 나라의 감옥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고, 한 나라의 미래를 알려면 그 나라의 학교에서 어떤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나라는 그나라가 보유한 대학 이상의 것이 될 수 없으며 대학은 국가의 뿌리입니다.

서울대학교가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국가의 동량이 될 인재를 지속적으로 길러내려면 우리 모두가 교육자로서 진정한 사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 북송(北宋) 시대의 유학자인 사마광은 자치통감에서 經師 易求 人師難得(경사이구 인사난득)이라고 하여 참스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서를 가르치는 스승은 구하기 쉬우며 인생

의 스승을 얻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지식을 배워 가르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지만, 사람을 기르는 스승으로서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人師의 길은 각고노력을 요구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앞으로 두서너 달 안에 제27대 총장이 취임하고 저는 총장공백기를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서울대 교수로서 살아오며 바라왔던 몇 가지 소망으로써 기념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망은 서울대학교의 혁신입니다. 하버드나 예일, 그리고 옥스브리지 대학처럼 오랜 역사를 지닌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이든, 싱가포르의南洋공대나 스위스의 로잔연방공대와 같이 역사는 비교적 짧지만 세계 최상위권에 드는 대학이든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하며 발전하는 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학혁신'입니다.

세계의 대학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과 대학의 혁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관행과 현상유지의 사고를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혁신 없이는 대학이 국가와 사회를 이끌고 발전시키는 인재를 배출하기 어렵습니다. 대학도, 기업도, 국가도 부단한 혁신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두 번째는 남북한 평화의 정착 그리고 통일과 관련된 소망입니다. 지구상에 냉전체제가 유일하게 남아 지난 60여 년 동안 분단과 대결로 점철되고 전쟁 위기까지 치달았던 남북한 관계에 새로운 변화와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체제가

구현되고, 남북한이 다시 민족통합을 이루어 변역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서울대 구성원이 지혜를 모으고,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대학교는 다양한 남북한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시작함으로써 남북한 간 신뢰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협력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머지않아 선출될 새 총장께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학문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되고, 균형적인 사고, 합리적인 대화와 민주적인 토론이 충만한 대학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성의 기본 바탕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며 성찰없는 지성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지성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험겨운 내부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대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러한 일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70여 년간 서울대인은 산업화를 이끈 역군이었고,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민주화에 헌신한 애국자였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빛나는 기여를 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서울대학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통일평화 시대의 소명에 부응하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무를 완수하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서울대학교의 혁신에 앞장서고 또한 참여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수의과 대학 '홈커밍 데이' 행사



서울대 수의과 대학은 "홈커밍 데이" 행사를 10월 14일 서울대 버들골에서 많은 수의대 동문과 내빈들이 참가한 가운데 가졌다. 수의대 우희중 학장은 축사를 통해서 금년 12월이 되면 서울대 수의대가 미국 수의사회(AVMA)로부터 Accreditation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그동안 도모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동문과 전 교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수의대가 미국 AVMA(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로부터 Accreditation을 받는다는 것은 서울대 수의대 졸업생들은 곧 미국의 수의대를 졸업하는 것과 똑 같은 대우를 받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차 수의대 졸업생들의 직업

시장이 넓어져 세계로 향하게 됨을 의미한다. 현재 서울대 버들골에서 많은 동문 병원을 개원하고 있는데 시설은 최신 CT Scanner, MRI(도입 중), Ultrasound 등의 첨단 장비가 갖추어져 있고 5개의 수술실 또한 최신식의 기구가 장비되어 있다. 이러한 첨단 기구와 장비들을 쓸 수 있는 전문가들도 많아서 매우 어렵고 복잡한 진단에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안내하던 교수가 귀뜸을 해 주었다.

수의대는 이뿐만 아니고 줄기세포 연구나 biotech 의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하여 왔으며 둘러본 한 조그마한 연구실에는 일년에 들어오는 연구비 만 100억원(10 million dollars) 이라고 한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위기

백 순 (법대 58)
논설 위원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제도라고 칭송을 받아왔고 바라보았던 정치제도인 민주주의와 경제 제도인 자본주의가 얼마 전부터 특히 최근 들어 서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들이 정치계와 경제계에 논란이 되고 있음이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다.

얼마 전 NGO인 '자유 의 집' (Freedom House)이 연구 조사하여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17년까지 12년 동안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인 시민 자유와 정치권리 (Civil Liberties and Political Rights)가 쇠퇴한 국가가 세계적으로 71개국이고 오직 31개국만이 향상하였다고 하는 통계는 20세기 후반 전 세계적으로 그토록 풍미하던 민주주의가 사라져 가고 있고 어쩌면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에 관하여서도 부정적인 뉴스가 기다리고 있다. 최근 서베이에 의하면 밀레니얼 세대의 43%만이 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있다는 통계이다. 즉 우리의 다음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의 과반이상은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와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위기를 가져오고 쇠퇴를 부추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에 대처하는 해결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원리는 각각 2가지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1) 개인의 자유와 권리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그리고 (2) 대중의 의지 (Popular Will) 등의 2가지 위에 운영되고 있는 정치제도라고 할 것 같으면, 자본주의는 [1] 개인의 소유권과 (Individual Property Rights) [2] 시장의 운영 (Market System) 등의 2가지를 바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경제 제도이다.

먼저 민주주의의 위기란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2가지, 즉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대중의 의지가 손상되고 침해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히 대중의 의지에 부당한 절차가 가입됨으로 말미암아 민주주의의 위기가 오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주의의 위기를 결과하는 2개의 부당한 절차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부당한 대중의 의지는 군사적인 지배이다.

하버드 대학교수인 스티븐 레빗츠키와 다니엘 지브렛트는 최근 출간한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사망하고 있는가' (How Democracies Die by Steven Levitsky and Daniel Ziblatt) 에서 지난 20세기 동안 많은 나라의 민주주의가 군사적 지배로 인하여 멸망하여 왔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고 제창한다. 그 예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도미니칸 리퍼블

릭,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페루, 타이랜드, 터키, 우루과이, 이집트 등의 나라들이다.

둘째 부당한 대중의 의지는 선출된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이다.

레빗츠키와 지브렛트 교수는 군사적인 지배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보다 더 심각하고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는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어떠한 형태이든 권위주의적인 권력행사로 민주주의를 극도의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야샤 마웅크 하버드대학 교수는 최근 저서 '국민 대 민주주의' (The People vs. Democracy by Yascha Mounk)에서 선출된 지도자들이 권위주의적인 권력행사로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고 하는 형태는 2가지 형태가 있다고 역설한다.

하나의 형태는 선출된 지도자들이 억만장자들이나 테크노크라트 등 엘리트층을 활용하여 독재적인 권력 행사로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고 가는 형태이다. 유럽연합의 많은 국가, 휴고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등등 나라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둘의 형태는 인기주의 (Populism)를 이용하여 권위주의적인 권력 행사를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형태이다. 지나치면 '다수의 폭장' (Tyranny of Majority)으로 되는 경우이다. 현재 헝가리, 폴란드 등 동구의 나라들이 이에 해당한다.

민주주의와 불가분의 관련이 되어 있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자본주의의 2가지, 즉 개인의 소유권과 시장의 운영 가운데 시장의 운영이 자유경쟁을 해치는 부적절한 운영으로 이루어질 때에 자본주의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부적절한 시장은 하나. 독점시장(Monopoly Market), 둘. 사회시장 (Social Market), 셋. 국가시장 (State Market) 등을 지칭한다.

하나. 부적절한 시장은 독점시장이다.

아담 스미스의 주장대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경제번영을 가져오게 되는 원동력인 '이기주의(Self Interest)'는 탐욕(Greed)이나 동물 정신 (Animal Spirit)으로 발전하게 되어 독점시장을 결과하게 되고 자본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기에 이른다. 미국을 위시한 선진경제들은 독점시장의 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그를 규제하는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인간의 탐욕과 동물 정신을 경제학에 도입하려고 하는 행동경제학 (Behavioral Economics)이 근래 태동하고 있다.

둘. 부적절한 시장은 사회시장이다.



박병일 (농대 69)

그냥 놔두세요

마음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그대로
그냥 놔두세요
방향을 하면
방향하는 그대로
그냥 놔두세요

바람이 스쳐가면
스쳐가는 그대로
그냥 놔두세요
낙엽이 지면
지는 그대로
그냥 놔두세요

울 것들은
반드시 찾아오고
갈 것들은
반드시 떠나가는 것

그냥, 깊게
바라보기만 하세요.

자본주의의 간간을 이루는 생산과 분배는 원활한 자유 경쟁 시장에 의하여 운영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자유 경쟁 시장의 구조는 부득불 분배의 불평등과 시장의 실패를 결과하기에 이른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국가와 공공기관이 시장에 개입하여 간섭하는 시장이 사회시장이다.

유럽연합의 많은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사회시장을 운영하는 실정이다.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국민복지 등 시장실패의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사회시장구조를 운영하게 되면 경제성장의 저조와 실업자의 증가를 불가피하게 결과하기에 이른다. 지난 2-3십 년 동안 유럽연합의 경제 성장률이 2%의 낮은 수준이고 실업률은 거의 10%에 이르는 경제 수치를 보여 주고 있다.

셋. 부적절한 시장은 국가시장이다.

국가시장의 좋은 예는 중국 시장이다. 국가 시장이란 시장을 움직이는 기업이, 특히 은행이 주로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국가의 경제 프로그램에 의하여 움직이는 시장이다. 국가시장은 현재 성장하고 있는 시장 경제의 우수성을 세계로부터 받아 들여서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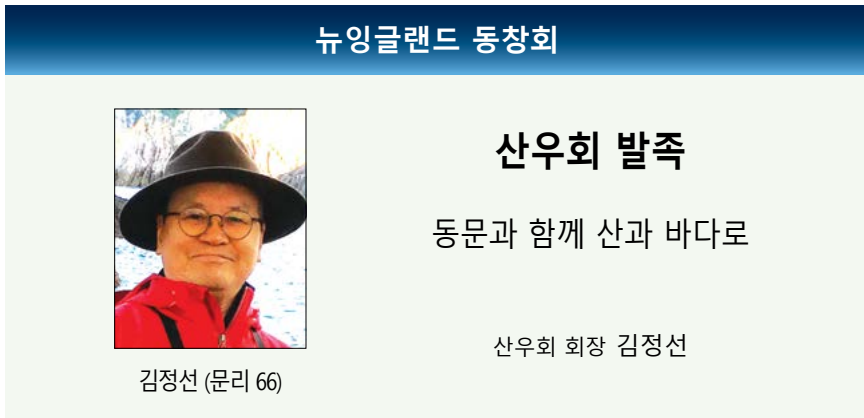
위성턴 버지니아 대학 경제학 교수

뉴잉글랜드 동창회 (회장 윤은상 상대 66)에서는 지난 7월 지부 이사회에서 SNU-NE 산우회를 정식으로 발족시켰다. 그동안 간간히 동문들의 건강과 친목을 위해 산행을 다녀 오곤 했는데, 전 회장 박영철 동문 (농대 64)의 제안으로 동창회 부속 기관으로 세칙을 인준하고, 회장에 김정선 동문 (문 66), 부회장에 정선주 동문 (간호 68)을 추천 임명했다. 뉴잉글랜드는 뉴햄프셔의 높고 낮은 아름다운 산들이 수없이 많아서 첼따라 일년 내 산행을 가도 지루함이 없는 곳이다. 또한 대서양에 연해 있어 잘 보존되어 있다. 미국의 10개 National Seashore중에 볼게 많고 아름다운 곳이며, Seashore를 따라 Provincetown, Truro, Wellfleet, Eastham, Orleans, Chatham 등의 뉴잉글랜드의 옛 모습을 간직한 작은 도시들이 자리하고 있다.

첫 산행으로 미국독립기념일에 뉴햄프셔의 Alton Bay 부근에 있는 Mt. Major (1,784 ft)를 등문, 가족, 친지 15명이 함께 올랐다. 파이란 하늘, Turquoise 빛갈의 호수 Lake Winnepesaukee가 내려다 보이고 멀리 White Mountains의 panorama를 즐길 수 있는 정상 바위산에서의 풍경은 언제 보아도 일품, 더우기나 마음이 통하는 동문, 친지들과 오르는 산은 심신을 행복하게 주었다. 사실 미 전국적으로 뒀던 Heat Wave에 뉴잉글랜드 지역도 90도를 상회, 산을 오르기에 조금 더워서 바가지로 땀을 흘리며 오르는 산이었지만, 점심 식사를 한 정상아래 그들은 시원한 바람을 가져다 주었다. 산을 내려와 미국 독립기념일의 분위기에 동참, Alton Bay의 Lake Winnepesaukee 호숫가에 잠시 차를 세우고, 이 동네 특산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즐기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어 더욱 좋았다.

더운 여름에는 산행도 좋지만 역시 바다가 더욱 시원하다. 보스턴 앞바다에 섬으로 이루어진 National Park 이 생겼다. 원래 Boston Harbor Islands State Park (1970)이었는데, 1996년에 National Recreation Area (NRA)로 지정되고, 최근에 NRA에서 National Park(NP)로 승격된 것이다. 미국의 60개의 National Park 중 동북부에는 오직 Acadia National Park만이 있었는데, Boston 바로 앞 바다에 National Park이 생긴 것은 큰 경사이다. Boston Harbor Islands National & State Park는 34개의 섬과 반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인기가 많은 6개의 섬이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다. 많은 동문들이 보스턴에 30년 이상을 살았는데도 바빠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나다가, 8월 25일 주말에 산우회 동문, 가족, 친지들과 함께 Hingham Shipyard에서 Islands Ferry를 타고 Peddocks Island에서는 Trail을 따라 Fort Andrews와 섬 주위 둘라 보고, 다시 Ferry로 Georges Island를 방문 Visitor Center에서 역사 및 지리 공부를 한 후 National Park Ranger를 따라 Fort Warren을 돌아 보았다.

9월 3일 (월) Labor Day에는 동문들이 함께 뉴햄프셔 Holderness 부근의 Mt. Morgan (2,220 ft) & Mt. Percival (2,212 ft) Loop를 다녀왔다. 이곳은 30여 년전에 나온 영화 "On Golden Pond"의 배경이 된 호수 황금연못 Golden Pond이 보이는 산이다. 1981년에 Academy Award를 받은 이 영화는 노교수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족간의 사랑, 변화, 죽음, 자연, 용서와 포용을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여배우 Jane Fonda가 8순에 가까운 아버지 Henry Fonda와 고령의 여배우 Katherine Hepburn을 설득해서 만든 마지막 영화여서 뒷이야기가 많다. 영화 제목의 Golden Pond는 바로 Squam Lake, 황혼에 보이는 호수는 그대로 황금빛으로 덮여 있다. 뉴햄프셔에서 두번째로 큰 호수, Big Squam



Boston Harbor Islands National & State Park 트레킹 (8월 25일)



Cape Cod National Seashore Trails & 해변가 걷기 (9월 22일)



Mt. Major 등반 (Independence Day, 7월 4일)

와 Little Squam Lake로 이루어져 있고, 산에서 내려다 보면 아름다운 호수의 경관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풀어 준다.

그리 높지 않은 두 개의 아름다운 산봉우리이지만 오후에는 80도 폭염에 습도가 높아 땀을 흘린다. Mr. Percival 쪽으로 올라 가면 겨우 몸이 빠져 나갈 수 있는 2개의 Cave를 지나야 하고, 능선을 따라 다음 봉우리 Mt.



Mt. Morgan and Mt. Percival 등반 (9월 3일)

Morgan에 오른 후에는 다시 내려가는 Cave 하나, 그리고 나무사다리 2개를 타고 내려와야 한다. Cave는 배낭을 메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작아 우리는 "개구멍"이라고 부르고 있다. 11명의 산사람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개구멍과 나무 사다리를 통과, Elevation 1,400ft, Loop 6 마일 거리를 다녀 왔다.

보스턴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팔굽처럼 굽

어 나간 Cape Cod National Seashore가 대서양을 바라보며 40마일에 뻗어 있다. 빙하가 남기고 간 자리에 차갑고 깨끗한 푸른 바다, 하얀 모래, Sand dune, Marsh field, 아름다운 등대들이 자리 잡고 있으나, 바람과 해류에 매년 3피트씩 깎여 나가 항상 조금씩 모양이 변해 가고 있다. 마르코니 Marconi의 대서양을 건너게 한 역사적인 무선시험 탑도 모래와 함께 쓸려 사라졌다.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은 자기 고향이 있는 이 지역을 National Seashore로 지정 더 이상 개발을 막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다. 미국의 10개 National Seashore중에 볼게 많고 아름다운 곳이며, Seashore를 따라 Provincetown, Truro, Wellfleet, Eastham, Orleans, Chatham 등의 뉴잉글랜드의 옛 모습을 간직한 작은 도시들이 자리하고 있다.

9월 22일 토요일, 14분의 동문 친지들이 함께 National Seashore Visitor Center 두 군데와 Marconi Historic site, 둘레길 Trails과 해변가를 걷고, Cape 끝에 있는 Provincetown도 다녀 왔다. 보스턴 거주 동문들에게도 가깝고도 먼곳이다. 하루 코스로 다녀 오려면 적어도 왕복 300 마일은 운전해야 하니 대개 옛적에 아이들 키울 때 한두번 가 보고는 선뜻 나서게 되지가 않는다. 그러나 보스턴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주말 휴식처가 되어 시즌때는 트래픽이 많이 아니다. 아예 포기하고 만다. Cape의 비치와 모래 사장은 아직도 원시적인 모습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고, Visitor Center와 Beach, 둘레길 트레일이 마련되어 있고, 카누, 카약등도 즐길 수 있다. 옛 기차길을 트레일로 개조한 Cape Cod Rail Trail 자전거 트레일이 22 마일, Nauset Bike Trail, Head of Meadow Trail, Province Lands Trail, Falmouth의 Shining Sea Bikeway, Cape Canal Bikeway 등 수없이 많은 Biking/Walking트레일이 아름답게 뻗어 있다.

아침 8:00 시에 Blue Hills Houghton's Pond Parking Lot에서 14분의 산우회원들이 만나 4차에 분승 우선88 마일을 달려, Salt Pond Visitor Center를 방문, Nauset Trail을 걷고, Marconi Station Site로 이동, 첫 대서양 횡단 무선통신의 역사를 Ranger에게서 들었다. 다시 차편으로 25 마일 Cape팔 Province Lands Visitor Center에 도착, Cape Cod National Seashore 역사를 보여주는 짧은 영화를 보고, 야외 벤치에서 즐거운 점심식사. 식사 후에는 Race Point Beach를 한 1마일쯤 걸었다.

마지막으로 다시 차로 이동 Provincetown를 방문, Pilgrim Monument를 바로 아래에서 올려다 보고 관광객들이 들끓는 다운타운을 가로 질러 바닷가도 잠깐 산책한 후 오후 4시 귀가 길에 올랐다. 마침 Labor Day가 지난 때여서 생각했던 National Park입장료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고, 그래도 traffic이 무난한 편이었다.

10월 13일에는 뉴햄프셔의 Mt. Welch and Mt. Dickey를 갈 예정인데, 산우회는 국경일을 포함 매달 한번씩 정기 산행을 예정하고 있다. 산행 공고 및 산행 후의 사진과 글, 산행 정보를 나누기 위해 간단한 블로그를 개설되어 있다. http://blog.daum.net/snu-ne-sanwoo 또한 이 블로그는 산우회장 김정선 동문 (시내산)의 블로그 http://blog.koreadaily.com/view/myhome.html?med_userid=JasonKimSR와 링크되어 있다.



68학번 이상의 원로 선배들 초대 약대 41학번부터 음대 2013학번까지 약 300여 명의 멋진 오찬

[기사: 홍선례 편집위원, LA]
지난 10월 27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Oxford 호텔에서는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강신용, 사대 73) 주최로 원로선배 초청 오찬행사가 열렸다. 68학번 이상의 원로 선배들을 초대한 이 행사는 각 단과대 동창회와 후배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졌고 30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강신용 회장

최용준(수의대 81) 총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순서는, 장진영(음대 88) 동문의 선창으로 교가를 다같이 제창함으로써 막을 올렸다. 강신용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1974년 동문회 창립 이래 강간이 몇 번 바뀌는 동안 서울대 동문들은 학계, 언론계, 재계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로잔치라는 자랑스런 서울대의 문화도 조용히 미주 동창회 자리매김합니다. 약대 1941학번부터 음대 2013학번까지 약 300여명의 멋진 오찬을 준비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한귀희(미대 68) 수석부회장의 참석자 소개로 이어졌고, 박중수(수의대 58) 동문의 원로 선배 대표 인사가 있었다. (축사 참조)

다음 강신용 총동창회장이 한효동(공대 58) 공대회장, 김동근(공대 60) 산악반 대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단체사진 촬영은 김지영(사대 69) 전 총동창회장이 수고하였다. 점심 식사와 건배 순서로 이어졌고, 방석훈(농대 55) 전 총동창회장이 건배사를 하였다.

2부 순서에서는 최용준 총무국장과 손영애(음대 85) 문화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순서로 서울대 합창단(지휘 장진영, 피아노 김연정, 음대 86)이 송창식 작곡 "우리는", Nacio Herb Brown 작곡 "Singing in the rain", 두 곡을 연주하였다.



공로패 수상, 한효동



공로패 수상, 김동근

이어 최고령 원로선배인 김영기(약대 41), 로영자(의대 48), 이순희(음대 49) 동문에게, 최연소 후배인 조용국(사대 92), 임현애(음대 13) 동문이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기, 로영자, 이순희

다음 이날을 축하하는 소음악회가 시작되었다. 최유나(음대 11) 동문이 Bach/Gounod의 "Ave Maria"와 Shostakovich의 "Cello Sonata in D minor, Op. 40 2nd Movement"를 Cello 솔로로 능란하게 연주하여 관객들을 감동시켰다. 임현애(음대 13) 동문은 영화 "Welcome to 동막골 주제곡"과 영화 "The Mission" 주제곡을 Oboe 솔로로 연주하였다. 우리 귀에 익숙한 Morricone 작곡인 Mission 주제곡은 관객들의 호응을 받고 박수를 많이 받았다. 첼로와 오보에 피아노 반주는 김선화 동문이 맡았다. 김선화(음대 11) 동문의 Piano Solo, Mozart의 "Sonata K. 332 in F Major 1st Movement"와 Rachmaninoff의 "Etude Op. 39 No. 1 in C minor"는 열광적인 연주였다.



첼로 최유나, 오보에 임현애

가야금 독주는 김영희(음대 82) 동문이 황병기 작곡 "침향무"를 연주하였고, 장고 반주는 김동석(음대 64) 전 총동창회장이 맡았다. 신비로운 가락과 반복되는 리듬은 장내를 흥겨운 분위기로 몰아 넣었다.

마지막으로 Ennio Morricone의 "영화 시네마 천국 주제곡"과 Carols Gardel의 "Por Una



가야금 김영희

Cabeza"를 Cello최유나, Oboe 임현애, Piano 김선화 동문이 Trio로 연주하며 소음악회는 화려한 막을 내렸다. 이어 경품 추첨이 있었고, 당첨된 동문들은 선물을 가슴에 안고 흐뭇해 했다. 모든 동문들은 다음 행사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아쉬운 마음으로 귀가하였다.

원로선배 초청 오찬행사

축사

박중수 (수의대 58)

이곳에 오신 선배님들께서는 저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사셨을 텐데 저에게 과분한 축사를 부탁하신 임원들께 감사합니다. 저는 미시간 대학 보건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연구생활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 사업을 했습니다. 그 후 버지니아주에 있는 Averett 대학의 학장을 하면서 우리의 미래는 교육에 있음을 깨닫고 후진들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0여 년 전 LA로 와서 사업을 하면서 수의대와 신학교에 장학금을 설립하고, 수의대 생명공학 연구 등 설립에 일부를 기여했습니다.

서울대 동문 여러분들의 꿈과 열정은 우리의 미래의 꿈과 희망이 되므로 앞으로 후배들과 자손들에게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박중수 동문

남가주새누리교회 신축에 큰 기여

지난 8월 5일 박중수 동문이 건축위원장님을 맡아 신축한 남가주새누리교회(구 LA 한인침례교회, 담임 목사 박성근 동문)의 신축 기념식이 많은 동문과 1,500여 교인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신축된 교회 건물은 1,500명 수용 규모 본당과 450대 주차장, 교육관 및 커뮤니티센터 등으로 이뤄져 있다. 교회측은 교회 신축에 들인 수고와 봉사의 답례로 박중수 동문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많은 동문이 축하차 참석



윤기향 (법대 65)

필자가 한 달여 전 "미국의 주식시장이 뜨겁다"라는 제목의 글을 쓸 즈음만 하더라도 미국주식시장은 거침없이 질주했다. 다우존스주가지수는 10월 3일 26,828.39를 기록했는데 이는 그때까지의 최고 수준이었다. (이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10월 29일 다우존스주가지수는 24,442.92로 곤두박질했다. 이 기간 미국의 주가는 무려 8.6%가 하락했다. 한 달 후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리라는 것을 예측했느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몰랐다"고 답할 것이다. 다만 그 글에서 나는 미국주식시장은 바람이 평행히 들 어찬 풍선과 같으며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이카로스의 이야기를 들어 폭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경고한 정도였다.

우리는 미래의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가? 이 주제는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이론으로서 갈릴리 갈릴레오와 시장효율성가설을 들 수 있다. 주가의 움직임은 흔히 '갈릴리갈리즘'(random walk)으로 묘사된다. 갈릴리갈리즘이란 "내일의 기대 주가는 오늘의 주가와 같다" 또는 "내일의 주가는 평균적으로 오늘의 주가와 같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갈릴리갈리즘이란 오늘의 주어진 여건에서 주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일컫는다. 술 취한 사람의 걸음걸이를 상상해 보자. 그가 현재 서있는 위치에 서 차례로 갈지 우로 갈지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전혀 예상할 수 없다. 주가도 마찬가지이다. 미래의 주가는 오늘의 주가에 예측할 수 없는 확률적 요소(random errors)를 더한 것과 같기 때문에 주가의 장래의 움직임을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갈릴리갈리즘이론의 결론이다.

주가의 갈릴리갈리즘은 시장효율성가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시장효율성가설은 현재의 주가는 시장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현재의 주가는 앞으로 예측되는 시장의 기본가치(fundamentals, 배당금이나 수익과 같은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 근거로 현재의 주식가격이 저평가되었다거나 고평가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없게 된다. 설령 저평가 또는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에 존 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가는 곧 이미 알려진 정보를 반영한 적정 주가수준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주식을 찾는 노력은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시장효율성가설의 결론이다. 시장효율성이론은 투자 즉박제, 투자 프로, 투자 고수, 투자 9단임을 자처하는 투자 전문가들의 투자비법은 모두 공개된 정보를 근거로 하는 한 투자자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와 같이 시장효율성가설은 일반 투자자들이 시장을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미래의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가?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끊임없이 사고파는 거래 (소위 단타 매매)를 할 경우 결국에는 시장의 평균치밖에 건지지 못한 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과연 주식시장이 효율적인가? 일반적으로 학계에 있는 경제학자들은 시장효율성가설을 수용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활동하는 투자 분석가들은 시장효율성가설이나 갈릴리갈리즘을 받아드리려고 하지 않는다. 만약 이들 이론이 맞다면 주가 추이를 분석해서 거래차익을 올린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 되기 때문이다. 몇몇 연구들은 일부 선진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정보가 신속히 그리고 정확히 주식가격에 반영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학자들 (예를 들면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의 로 (Lo)와 맥킨리 (MacKinlay)는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갈릴리갈리즘의 특성을 갖는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장효율성이론이나 갈릴리갈리즘의 제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시장효율성은 장기적으로 미래의 유망한 주식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제는 장기적인 성장 추세에 발맞추어 시장의 기본가치도 상승하며 그에 따라 주가도 장기적으로서는 성장곡선을 그린다. 경제는 장기적인 성장곡선을 그려가면서도 단기적으로는 경기순환을 반복한다. 주가도 이러한 경기순환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추세를 타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롤러코스터 (예측할 수 없는 확률적 요소)처럼 오르내린다. 그러나 주가의 변동은 경기변동보다 훨씬 급격하여 단기적인 변동장세 속에서도 순간마다 널뛰기를 한다. 실패한 투자자들은 대개 이러한 널뛰기에서 너무 높이 뛰려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한국에서 한 때 사이비 논객인 미네르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예상했고 달러 대비 원화 가치의 급락과 주가의 폭락을 예측했다고 해서 많은 화제를 불러 모은 적이 있다. 한국의 미네르바는 과연 신통력을 가진 예언자였을까? 만약 그가 리먼 브라더스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면 그의 예측은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즉박제처럼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맞추었다면 그의 예측은 신통력이 떨어진다. 그것은 우연의 일치이며 그런 점에서 점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리먼 브라더스의 몰락은 운명적인 것이었다. 리먼 브라더스는 망하기 바로 전 미국 폴슨 재무장관, 버냉키 연준의장, 그리고 오바마 정부의 재무장관을 근거로 하는 한 투자자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와 같이 시장효율성가설은 일반 투자자들이 시장을

강기동(공대 53) 동문 자서전 출간 기념회 개최



【기사출처: 머니투데이, 편집: 김원영】 지난 11월 3일 저녁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에서 강기동(공대 53) 동문의 '강기동과 한국 반도체' 자서전 출판기념회가 200여 명이 넘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자리에는 강기동 박사(84세)의 경기고 49회 동창인 이흥구 전 국무총리도 참석해 축하사여린 시절 친구인 강기동 동문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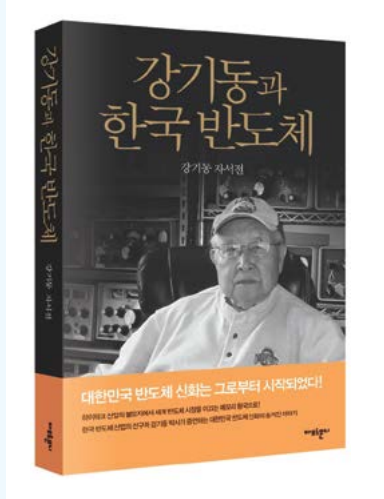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축하사여 참석

1934년생 함경남도 함흥 출생인 강기동 동문은 모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와 오하이오주립대를 졸업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 '모토로라', '슈튜어트 워너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반도체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며 반도체 기초를 닦았다.

이후 귀국한 강 박사는 1974년 1월 26일 김규환 KEMCO(켄코) 사장과 100만달러를 투자해 한국 최초의 전공정 반도체 제조 공장인 한국반도체를 경기도 부천에 설립해 1조 달러 수출실적을 올린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씨앗을 뿌렸다.

볼 수 있다. 한국의 미네르바는 동전의 뒷면에 배팅을 했고 그것이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이다. 한 제자가 공자에게 "점이 얼마나 잘 맞습니까?"고 물었다. 공자는 "7할은 맞는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점이 열 번 가운데 일곱 번은 맞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점이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 번 가운데 다섯 번 정도라고 보는 것이 확률이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결론이다. (물론 숫자를 맞추 확률은 이보다 훨씬 줄어든다)

미네르바의 부엉이 (Owl of Minerva)는 지혜의 여신인 미네르바와 항상 함께 다니는 신조 (神鳥)인 부엉이를 말하는데 지혜의 상징이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그의 법철학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1820년)에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서야 날개를 편다" (또는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땅거미가 질을 때 날기 시작한다")라는 유명한 문구를 남겼다. 헤겔



한국반도체는 1974년 12월 삼성에 인수돼 강 박사는 삼성반도체 초대 사장을 지낸 후 뜻하지 않은 일들로 꿈을 접고 도미해 줄곧 미국에서 생을 보냈다.



김규환 당시 KEMCO(켄코) 사장, 강기동 동문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한국을 뛰어들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활약 중

이 법철학에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를 언급한 것은 미네르바의 부엉이 (즉 지혜 또는 철학)가 낮이 지나고 밤에 그 날개를 펴는 것처럼, 철학은 앞날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조건이 지난 간 이후에야 그 뜻이 분명해 진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주가 예측이 얼마나 빗나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는 수 없이 많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07년) 정권이 교체되면 1년 안에 주가지수 (KOSPI)는 3000을 돌파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흐른 2018년 현재도 한국의 주가지수는 2000 안팎의 박스권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Florida Atlantic University 경제학 교수 저서: "시가 있는 경제학 (경영사)", "현대거시경제론 (법문사)", "증권의 논리, 투자의 예술 (씨앗출판사)"

남가주 법대동창회 정기모임



【기사: 홍선례 편집위원, LA】 가을이 무르익어 제법 선선한 바람을 옷감으로 느끼게 하는 지난 10월 9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남가주 동창회(회장: 최진석, 64학번) 정기모임이 LA 용수산에서 있었다. 이



여행 단체사진

모임은 2달에 한 번씩 전 법대 동문들이 모이는 정기 모임이다. 30여명의 동문들이 모인 가운데, 2018년 송년회와 여행 등의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친목을 다졌다. 다음은 최진석 회장의 여행기이다.



이창신, 정인환, 이기준 동문

남가주 법대동문 단체여행기 최진석 (법대 64)

지난 6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로 기자회견을 다녀 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이기준 부부, 정인환, 윤경민 부부, 최수일 부부, 오문성 부부 및 아들, 이창신 부부, 권혁창 부부, 강경수 부부, 김선기 부부, 최승규 부부, 최진석 부부, 김경필 부부 및 손녀 등 총 25명이 참가하였다.

LA Union역에서 출발해 San Luis Obispo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서부 제일의 비경인 태평양 해안을 끼고 달리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식당 칸을 전세 내어 웃고 떠들며 오랫동안 동문들 간의 우정과 소통을 함께 나누었다. San Luis Obispo역에서 내려 대기 중인 버스로 아름다운 어부의 마을, Avila Beach에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마시며 청년시절로 돌아가 추억을 되새겼다. 그리고 San Simeon에 도착하여 호텔에서 잠을 푹 잤다.

저녁식사 후에 호텔 수영장에서 최승규 동문과 이기준 동문 부인의 생일을 축하하며 와인파티로 여행 첫날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였다. 다음날 아침 바닷가 식당에서 아침을 하고, San Simeon 해변을 관광하는 중 큰 무리를 지어 누워 있는 바다 코끼리는 모두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다음 Hearst Castle에 도착했는데, 세련된 가

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강 동문은 '한국 반도체의 아버지'인 셈이다. (본보 2018년 2월호 기사 참조)

자서전은 ▲ 1부 유년과 청년시절 ▲ 2부

이드의 안내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채울 수 있었다. 건축가 Julia Morgan이 디자인한 연로 재벌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의 개인 집이라고 한다. 허스트는 이 집을 '마법에 걸린 언덕'이라고 이름 지었지만, 사람들은 대농장, 혹은San Simeon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Solvang 관광을 마지막으로 LA로 돌아와 '북창동 순두부'에서 이태로 동문의 초대로 뒷풀이를 하며 정담을 나누었다. 공교롭게도 이번 여행에는 우리 법대동문만 참가하여 오롯이 우리들만의 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 앞으로 20명 이상만 되면 어디든 단독여행을 준비하겠다는 여행사의 다짐도 받았다. 도우미로 합류한 여행사 정이사는 최수일 동문 부인의 사촌동생이었다. 기자회견 대화 중에 며칠 전에 아들의 결혼 피로연을 성대하게 치른 김선기 동문의 부인이 나의 고등학교 친구인 안모군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안모 군이 10여년 동안 찾으려 애쓰던 사연을 알게 되었다. 북창동 순두부 뒷풀이 모임에 안모군 부부를 초대하여 극적인 상봉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우리 법대 동문 모두의 자랑인 이태로 동문의 호의에 감사 드린다. 6월 법대 정기 모임을 위한으로 기획된 이번 기자회견은 아무 말 없이, 동문 모두의 절찬리에 끝난 화려한 수학여행이라 자부하겠다. 금년 중에 앵골 여행을 준비하라는 동문들의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으니, 이 또한 행복한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반도체와 나 ▲ 3부 한국 반도체, 신화의 진실 등으로 구성됐다. 총 352쪽, 출판은 아모르문디가 맡았다.

뉴욕지역 동창회 서울대 뉴욕음악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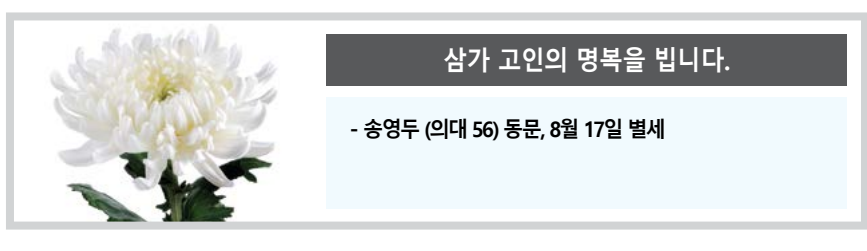


【기사: 김원영 편집인, 뉴욕】 뉴욕지역 동창회(회장 손대홍)가 주최한 서울대 뉴욕 음악회가 10월 20일 뉴욕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음악회는 뉴욕 일원에서 유학 또는 활동 중인 모교 음대 출신 음악인 16명이 무대에 올라 오페라 아리아, 유명 뮤지컬과 가곡, 클래식 20여곡을 공연장을 가득 메운 동문과 지역 동포 관객 800여명에게 선사했다.

출연 동문: 음악감독 이준희 (95), 피아니스트 김소연 (92), 피아니스트 장현주 (02), 바이올린리스트 주현정 (92), 첼리스트 박정윤 (93),



테너 김성욱 (01), 바리톤 유영광 (04), 소프라노 윤혜린 (04), 테너 조현호 (04), 바리톤 황선엽 (08), 소프라노 김현정 (08), 소프라노 최예슬 (08), 테너 정동혁 (09), 소프라노 연예슬 (11), 바리톤 김중화 (11), 호른 오지선 (12), 바순 장인경. 특별출연: 롱아일랜드 한국학교 어린이 합창단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송영두 (의대 56) 동문, 8월 17일 별세

시카고 동창회 장학 기금 모금 음악회 개최



교가를 제창하는 출연 동문

【기사: 회장 홍혜례】 시카고 동창회 (회장 홍혜례 사대 72입)는 지난 10월 6일 (토) 시카고에 소재하는 노스이스턴 대학 리사이틀 홀에서 동문 및 친지들을 모시고 장학기금 모금 음악회를 가졌다. 시카고, 어바나 샴페인, 인디애나 지역에 거주, 수학하는 서울대 음대 동문들 19명이 참석하여, 아름다운 선율과 화음으로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특히 마지막 앙코르곡으로 연주자 동문 전원들이 나와 교가 제창을 하자, 참가 동문들도 모두 일어나 함께 불렀으며, 학창시절을 회상하였다.



인 후원과 음악회를 기획한 이소정 (음대 84입)동문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음악회의 수익금은 모두 장학기금으로 적립된다. 음악회 동영상은 www.snuachicago.org 에서 볼 수 있다.

음대 동창회장 (김영희 68입) 동문의 적극적

시카고 동창회 임원회 개최



임원회에 참가한 동문 및 가족 일동

【기사: 회장 홍혜례, 사진: 임원재 (의대 59)】 시카고 동창회 (회장 홍혜례, 사대 72)는 2차 임원회를 9월 30일 김호범(상대 69)/박중희(의대 69) 동문 자택(Glenview, IL)에서 가졌다. 이날 임원회에는 34명의 임원 및 가족이 참석하였다. 주요 토의 내용으로는 장학기금모금 음악회 준비 및 진행 사항, 장학식 선발 및

기금관리 보고, 차기회장 선발 관련 토의, 동창회의 사업 전반, 재무 등에 관한 보고와 토의가 있었다. 1차 임원회에 이어 2차에도 장소를 제공해줘 올해의 시카고 동창회 영빈관으로 지정된 김호범/박중희 동문댁에 드리고, 또 저녁 식사를 후원한 유성모(미대 82) 부회장께도 감사드린다.

남가주 음대동창회 정기연주회 개최



【기사: 홍선례 편집위원】 지난 10월 7일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Zipper Concert Hall에서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남가주 동문 정기연주회가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협찬으로 개최되었다. 이 연주회에서 450석을 가득 매운 관객들은 음대 동문들의 연주에 매료되어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냈다.

첫 번째 순서는 A. Dvorak의 "Piano Quintet in A Major, Op. 81"을 피아노 이승현(04 학번), 바이올린 김유은(07 학번), 바이올린 박예린(10 학번), 비올라 유혜리(08 학번), 첼로 김원선(04 학번) 등의 동문이 연주하였다.

리고 풍부한 표정을 보여 주었다. 우리가 익히 들었던 김성태 작곡 "산유화"에서도 비범한 발성과 화려한 음색으로 관객을 완전히 압도하였다. 제갈소망(02 학번)의 피아노 반주 역시 탁월하였다.



박선우

"중광지곡 중 염불도드리, 타령"에서는 단소 김동석(64 학번, 전 총동창회장), 해금 김미자(81 학번), 가야금 김영희(82 학번) 동문이 한국음악의 정수를 보여 주었고, 장내는 잠시 애절한 분위기로 휩싸였다.

C. Debussy의 "Sonata for Flute, Viola, and Harp"는 플루트 최혜성(99 학번), 비올라 유혜리, 하프 윤희진(99 학번) 동문의 연주였다. 실내악의 구성으로서 특이한 트리오 소나타이다. 비올라의 진하고 깊은, 어두운 음색, 그리고 인류의 가장 오래된 악기 중 하나인 하프의 높은 음역, 날카로우나 아름답고 섬세

박선우 동문의 노래는 특별하였다. 오페라 아리아에서 폭넓은 성역과 뛰어난 기교, 그

워싱턴 DC 동창회 36대 첫 정기 이사회 개최



회장 정평희

【기사: 편집위원 한정민 (농 87)】 워싱턴 지역 동창회는 (회장 정평희, 공71) 지난 9월 29일 (토) 오후 5 시에 비엔나에 위치한 우래움에서 36대 첫 정기 이사회를 가졌다. 이사회에 앞서 장수영 (공 57) 동문의 한국 고대사 특별 강연이 있었으며, 식사 후에 이사회가 진행되었다.

40여 명의 이사와들 임원들 참석한 36대 (임가: 2018년 7월~2020년 6월) 첫 이사회는 새로 선출된 정 회장의 인사말 후 36대 임원 소개가 있었다. (서기/조직: 최동호 (문 68), 회계: 강윤선 (전 81) 총무: 한정민 (농 87) 문화: 문향식 (농 81) 체육: 오재환(사 85) IT: 김선민 (경 83) Liaison: 류영준 (공 02) 그 이후 모든 참석자의 자기 소개 시간을 얻은 후, 지난 35대 (회장 안선미) 회계 보고와 결산과 함께 새 회장단의 예산 승인이 있었다. 올해 준비한 사업 계획으로는 11월 1일 (목) 친선 골프 대회, 12월 16일 (일) 송년 모임, 내년 구정 즈음에 열리는 구정파티와 가정의 달 5월에 동창회 전가족 피크닉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36대에서는 동문 e-뉴스레터를 최동호 (서기/조직, 문 68)이 제작담당을 맡아 동문들의 소식과 경조사를 알리는 분기별로 소식지를 준비해서 10월에 첫호가 발송되었다. 더 많은 젊은 동문들과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악세대 (80-90 학번)인 '아크로폴리스'와 2000년대 학번인 '샤로수모임을 적극 후원하며, 동호회를 활성화려고 애쓰고 있다. 12월 열리게 될 송년 모임 안내와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하였다.

이번 이사회에는 올해 초에 처음 모이기 시

한 플루트의 조화로 한껏 분위기는 화려한 환상의 세계로 이끌어 간다.



이승현, 김유은, 박예린, 김원선, 유혜리

마지막으로 W. A. Mozart의 "Grande Scherzo: Based on the Finale to Act 1 from Così fan tutte", C. W. Gluck의 "Ballet from Orpheus et Eurydice", 그리고 L. Bernstein의 "Mambo from West Side Story"는 서혜원(06 학번)과 제갈소망(02 학번)의 Piano Duo로 연주되었다.

Bernstein은 미국의 전설적인 20세기 음악가이다. 그의 뮤지컬 "West Side Story" 중에서



장수영 (공 57) 동문의 한국 고대사 특별 강연

작한 2000년대 학번 모임 <샤로수>의 류동문 (공 02) 회장이 모임 취지를 설명하면서 '학위를 받고 직장을 잡으니 낯선 미국 유학 생활에 적응하면서 힘들던 시간들이 떠올라 후배들을 챙기기 시작해 매달 모이기 시작했다. 처음에 4명이던 모임이 지난달에는 18명을 되었다. 미국 생활에 베테랑이며 전문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신 선배님들의 삶의 지혜와 경험, 네트워크가 뒷바침 되면 더 많은 젊은 후배들이 동창회에 관심을 보여 모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배님들의 지지와 격려를 부탁했다.

이번 36대에서는 동문 e-뉴스레터를 최동호 (서기/조직, 문 68)이 제작담당을 맡아 동문들의 소식과 경조사를 알리는 분기별로 소식지를 준비해서 10월에 첫호가 발송되었다. 더 많은 젊은 동문들과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악세대 (80-90 학번)인 '아크로폴리스'와 2000년대 학번인 '샤로수모임을 적극 후원하며, 동호회를 활성화려고 애쓰고 있다. 12월 열리게 될 송년 모임 안내와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하였다.

교향적 무곡 "Mambo"는 빠른 Presto 템포이다. 이 곡이 연주될 때, 관객들은 박수를 치면서 연주자와 함께 호흡하며 매우 흥겨워 했다. Mambo는 라틴 음악의 하나인데, Mambo라는 말은 아이티의 토착종교인 부두교의 여자 사제의 이름으로 "신과의 대화"라는 의미라고 한다.

항상 그러했듯이, 2018년에도 하늘이 청명한 가을, 10월에 있었던 음대 동문들의 주옥 같은 연주는 우리에게 마음의 풍요를 가득 안겨 주었다.



많은 동문이 공연 관람을 했다.

남가주 공대동창회 월례 조찬 모임 결성



【기사: 조직국장 백옥자】 매달 둘째 주 월요일 남가주 공대(회장 한효동 58) 동창회 조찬모임이 있다. 10월 8일 오전 10시 조찬 모임에 30여 동문이 플러튼 Dennis Restaurant(400 N Vermont Ave. LA)에 모였다. 주로 69학번 이상인 참석 동문은 정경한 박사님들과 은퇴 후,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고 계신 분들이다.

한효동 회장은 이 모임을 만들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금년이 서울공대 남가주 동창회가 창립한지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그 동안 소홀했던 동문 간의 친목과 화합을 위해서 매월 정기적인 조찬모임을 계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적인 동문 모임이 없었으나 처음으로 시도하는 조찬모임에 많이 참여하기 바라며 만나는 장소도 다양하게 할 것이며 모임도 재미있고 유익한 만남의 장이 되도록 또한 가능하면 회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효동 (공대 58)

단체활동은 회장에 따라서 활동범위가 달라지는데 한효동 회장은 58학번 임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행사를 많이 만들어 서로를 알고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유대관계가 형성되며 큰 행사에서 만나도 어색함이 없어 더욱 친근해지며 대화에 꽃을 피워 즐거운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원택 (의대 65) 동문

2018년 미주 펜 문학상 시부문 수상자로 선정



이원택 (의대 65)

【기사: 이원택 동문】 노인정신과를 전공하고 문학에 많은 관심

을 보여온 이원택 (의대 65) 동문이 금년도 미주 펜 문학상 시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오는 11월 30일 (금) 오후 6시에 LA에 있는 "용수산"에서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이 동문은 그동안 한국에서 수필, 시 평론에 등단되었고, 최근에 나온 <분광경>을 위시해서 7권의 저서를 낸 문인으로 2015년부터 '획기적'인 중형 한-영 '처방사전'을 집필하고 있다. 젊은 동문이나 가족 중에 사전 편찬을 평생 사업으로 할 분이 있으면 wonlee0120@gmail.com으로 연락하기 바란다.

<박영숙 시인 약력>

1954년 동아일보로 등단. 서울사대 영문과 수학, 로마 유학. 대한일보 유럽 통신원 뉴욕에서 요미우리(일본) 신문사 재직. 현 뉴욕 거주 청미(靑眉) 동인. 국제 펜클럽 회원. 국제시인협회 회원, 미주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여성문학인 회원

저서 * 시집 <이브의 상념, 1959> * 장편 서사시집 [로마의 귀뚜라미, 2012] * 현대 여류문학 33인집(1964) * 재미시인 (9인) 선집 (1975) * The National Library of Poetry USA 입상 후, Beyond the Stars

(1995) 영문 시집 발행 * 청미 30주년 기념시집 (1993) * 청미 35주년 기념 시집 (1998) * 시선집 <수정과 장미, 1960>, <사색과 영원, 1962>



서울 조선호텔에서 청미 동인들과 함께 오른쪽부터 시인 허영자, 김후란, 김숙자, 박영숙, 주영수

동문 문단

흰 돌 (기원전의 꽃)



박영숙 (사대)

1
더함 없이
희고 찬 돌이 그리워
후오노 로마노
고대 (古代) 비밀 아는
대리석 흰 돌 하나
들고 와 놓고 보니

4
앞날을 말하지 않는
네 마음이 슬기로워
문(文)은 망하나
다시 거듭되고
무(武)는 망하면
그만이었네

6
스스로
나래를 펴는
죽지 않는 새
한 세상 다시금
흰 돌 위에
눈부신 날개...

2
흰 돌은 말없고
흰 돌을 품으니
사무치게
찬 돌의 축축함만
시린 내 안에 부딪네

5
문(文) 무(武)
그가 사라지긴
한 모양인 이승이지만
문(文)은
불탄 잿더미에서

3
옳으니라
말을 않는
흰 돌
네 마음이 영특하여
영고성쇠 (榮枯盛衰)
되풀이 되는 뜬 이름
기 때문이다.



수목 영가 (樹木靈歌)

1
내 영혼은
물가에 선
한그루 나무
가시나무에
포도송이가
열리지 아니하며

2
내 영혼은 물가에 선
한그루 나무 그늘
폭양을 가려주는
장막이 되고
무지개 햇살이
걸리는 자리

3
내 영혼은 물가에 선
한그루 나무 열매
너는 나의 가장 안에서
자라나고
나의 젊음이
다한 어느날

영강귀는
무화와 열매
맺지 못하노니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흔들리는 나무

기슭의 약초(藥草) 들이
서그럭거리는
해질 무렵
산새들, 나래 접고
찾아드는 서늘옹고
은밀한 그늘 펼쳐는 나무
캄캄한 밤

너는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리니
그 뿌리가
물가에 있으므로
그 가지가
번성하여

매 분수대로 지나나는
눈매이려니
흰목 드리우고
시내를 따라 타는 입
잠그듯이
검은 뿌리로
푸른 하늘을 향하기
욕되지 않도다

소울한 바람 속에
지는 죄 말기운 채
소리없는 울음
아픈 몸짓을
지니노라

흰 열매
절로 향그런
나는
한그루
영세(靈洗)의 나무이고자
서 있어야

남가주 미대동창회 동문전 개최



Shin, Jung Yeon Colorful World B 36 x 36 Acrylic 2018

【기사: 한귀희, 남가주 미대 동창회 회장】
제 16회 남가주 서울 미대 동문전이 지난 10월 13-24일 Park View Gallery(작가의 집)에서 열렸다. 24명이 참가한 이번 전시회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기법으로 제작한 회화작품을 비롯해 조각, 건축 작품 등이 선보이며,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동문들과 한국과 미주를 오가며 꾸준히 전시회를 갖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었다.

전시회 참여 작가는 강영일, 김경애, 김구자, 김영배, 김윤진, 김화자, 노성인, 박다애, 박영구, 박영국, 백혜란, 서동현, 성수환, 손남수, 신동인, 신정연, 신혜자, 심영자, 오성주, 윤탈자, 장원경, 한귀희, 한석란, 홍선애 동문 등이었다.

장원경 (미대 73) 동문

LA Thomas Paul Fine Art에서 초대전 개최



장원경 (미대 73)

【기사: 홍선례 편집위원】
지난 6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웨스트 할리우드에 위치한 퍼시픽 디자인센터 내 Thomas Paul Fine Art에서 조각가 장원경(미대 73) 동문의 초대전이 열렸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는 장원경(미대 73) 동문의 '내면의 공간(Inner Space)'을 타이틀로 열린 이번 전시는, 그간 한국에서 전시, 강의와 더불어 대형 조각 설치작업을 위주로 활발히 활동했던 작가가 미국 작업활동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전시회이다.

이번 전시 타이틀인 '내면의 공간'은 순수한 교포 출신 작가로서 삶에 맞닥뜨려 '살며 사유하며 지겨 나간 내 안의 작은 공간'을 뜻한다. 합(Synthesis)의 작가로 알려진 장원경 동문은 삶의 양극적 요소를 대비시켜 그 충돌로 파생되는 아름다움으로 시각적 작품성을 극대화시키려는 작업이 자신의 작품세계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영원한 주제라고 밝히고 있다.



Sung, Soo Hwan Winter Night 48 x 30 Acrylic 2018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하는 동안 끊임없이 작품을 준비하고 제작하며 일년에 몇 번씩 개인전과 그룹전을 갖는 작가들의 치열한 작가정신을 볼 수 있었던 이번 동문전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실험적인 작품도 출품되었으며, 기존 작가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듯 처음으로 작품을 출품한 새 동문 작가도 있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남가주 총동창회의 많은 임원 및 동문들이 찾아주어 작가들을 격려하고 축하해 주는 총동창회의 한 행사로 자리 매김을 함으로, 더 좋은 작품으로 내년을 찾아 뵙겠다는 작가들의 결의를 다지는 행사가 되었다.

하트랜드 동창회 정기총회 및 동문의 밤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이치현(약대 77) 동문

【기사: 하트랜드 동창회 e뉴스레터】
하트랜드 동창회(회장 오명순)가 지난 9월 15일 2018년 정기총회 및 동문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선 후배간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주현(미대 92)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는 오명순(가정 69) 회장 인사, 오태요(의대 56) 이사장 환영사, 윤상래(수의대 62) 미주동창회장 격려사, 이주현 총무의 사업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장학생 시상식에서는 박수빈(Univ. Kansas), 장영인(Univ. Kansas) 동문이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이치현(약대 77) 장학위원장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았다. 오태요 이사장은 김재권(사대 68) 전임 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어서 오명순 회장의 진행으로 안건토의 및 의결 순서가 있었다. 김명자 동문의 추천으로 이치현 동문이 차기 하트랜드 지부 동창회장 후보자로 추천되었으며, 만장일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9월 15일 10시 30분 아이언 호스 골프 클럽에서 치뤄진 골프대회에서는 Gross Champion으로 Dennis Cho(이주현 동문의 남편), Net Champion으로 이치현 동문, 2등은 이재명 동문, 3등은 배규영 동문, 4등은 김준 동문, Longest는 배규태 동문, Closest는 이우영 동문이 차지하며 알차게 치루어 졌다. 특히, 한국에 가서 치아 치료를 하고 오니 공이 멀리까지 가더라는 배규태 동문의 비밀이 밝혀져 너도 나도 한국으로 치아 치료를 받으러 가지 않을까 하는 후문을 남겼다.

로 통과되어 차기 동창회장엔 선출되었다.

동문의 밤 순서엔 임소연 동문과 그 남편 전정훈 씨의 Viola d'amore, 이태리 씨의 피아노 연주는 동문회의 밤을 더욱 빛냈다. 특별히 전정훈씨의 Viola d'amore 라는 악기에 대한 역사적 유래에 대한 설명과 연주는 많은 동문의 관심을 모았다.

윤상래 회장은 "나의 삶과 미주동창회"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주현, 조성권 동문이 진행한 즐거운 오락과 여흥, 행사광고 순서를 끝으로 이날 행사를 마무리 했다.

이주하면서 출산과 육아 등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작가는, 자녀들이 자란 후 늦은 나이에 칼스테이트 대학원에 진학해 본격적인 작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대학원 졸업 직후 가졌던 일본 동경 Gallery Q 초대전을 찾아 준 일본 분수조각의 거장 세키네 노부오와 2002년 부산 비엔날레 조각 프로젝트에 동반 초대를 받았다. 그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환경 조각작가의 길로 들어 서게 되어 전국에 12곳에 대형 조각을 영구 설치하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2002 부산 비엔날레 참가작품인 너비 10m, 높이 4m, 전장 20m에 달하는 환경조형물 '터로서'의 몸·합(Body as a site- Synthesis)은 현재 부산 송도 해상케이블가 정문에 설치되어 있다.

장원경 동문은 서울미대(BFA)와 칼 스테이트 롱비치 미술대학원을 졸업 (MFA)하고, 부산 비엔날레 조각 심포지엄 초대작가, 모산 국제조각 심포지엄 초대작가로 활약했다. 롱비치 디자인센터 갤러리 개인전, 도쿄 갤러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reet,
Fitchburg, MA 01420

인간관계와 성격



박승용 (의대 65)

우리는 부모형제, 부부의 관계에서부터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사랑, 미움, 즐거움, 괴로움, 시기, 질투, 기쁨, 두려움 등을 경험하고 이에 적응하기도 혹은 갈등하기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관계를 피할 수도 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인식할 여유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우리의 인간관계(interpersonal relationship)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이 있음을 알게되고 또 이에 적절하게 대처한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제일 큰 요인으로 우리는 서로 다른 성격(character, personality)을 갖고 있어 우리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복잡하게 한다.

우리는 인간관계의 아름답고 좋은 면도 많이 보지만 그렇지 못한 관계도 많이 보게 된다. 매 맞는 부인,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기 결혼, 보충했다 평생 빚더미 위에 사는 사람, 부부지만 남만도 못한 관계, 황혼이혼 등등 우리 주변의 비극적인 인간관계를 보며 말도 있다. 이런관계에서 우린 서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만나 슬픈 관계를 갖게 되지만, 관계의 부조화는 서로의 다른 성격이 조화되지 못하고 갈등하는 것이 제일 큰 이유가 될 것이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격은 태어날 때 이미 부모의 유전자 조합으로 주어진 선천적인 성격 요소 위에 태어난 후 육아, 환경, 문화에 따라 형성된 후천적인 성격이 합쳐 개인의 성격 혹은 인격이 형성된다고 본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선천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보여진다. 성격이 변하기 어려운 이유도 유전적이기 때문이다. 같은 부모 형제자매도 같은 환경, 문화, 육아라도 아주 판이한 성격으로 됨을 볼 때 유전적 영향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같은 부모라도 부모 유전자의 random 조합(combination)으로 다르게 태어나는 것이다. 일란성 쌍둥이는 예외이다. 정신분석학에서는 후천적인 육아 특히 어릴 때 엄마와의 관계가 성격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본다. 실제로 엄마의 사랑을 덜 받거나 지나친 과잉보호를 받은 개인의 성격에 영향이 크게 됨을 본다.

또 문화적 차이에 의한 성격 형성의 영향도 지대하다. 동양과 서양의 다른, 동양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의 다름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서양은 유대 기독교 문화의 영향으로 죄 문화(guilty culture)라고도 하고 개인적이고 계약적이고 귀납적 분석적이며 정리정돈을 잘한다. 이는 서양 육아에 toilet training이 영향을 줬다고 본다.(Freud의 항문적 성격),

반면 동양은 유불교 문화의 영향으로 도덕적이고 체면 문화(shame culture)라고 하며 가정 중심적이고 연역적이고, 운명적이며, 의존적이고, 정리정돈이 약하다. 동양의

젖떼는 시기가 늦고 toilet training이 약하다 (Freud의 구강적 성격). 동양삼국도 한중일의 차이점이 극명한데, 예를 들면 일본인들은 질서를 잘 지키고 깨끗하고 리더에 순종하고 앞뒤가 달라 이중적이라 하는데, 이는 섬나라에서 오랜 봉건사회를 거친 생존법인 반면, 한국은 가장 유교적이고 체면치레가 심하고 정정이 불안한 반도의 불안한 지정학적 특징을 갖고, 중국은 넓은 대륙, 많은 인구, 찬란한 문화, 대제국 건설로 중화사상, 우월감, 강한 자부심과 심한 허풍이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아주 다른 개개인 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많은 경우 공격하고, 방어하며, 아부하고, 뒤통수치고, 헐뜯고, 사기치고, 학대하고, 왕따 시키며 자신의 생존을 위해 온갖 술수를 쓴다. 부부가 만날 때 서로 정반대의 성격이 곧잘 만난다. 서로의 다른 성격에 매력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결혼해 오래 살다 보면 이 매력이었던 것이 서로 달라 견딜 수 없는 단점으로 변해 불만이 되고 결국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곤 한다. 완벽한 성격의 부인이 느리고 낙천적이고 편한 남편을 만나 서로의 다른 성격으로 싸움이 그치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정신과의 대부 Freud의 이론의 본질은 인과론(causality)이다. 모든 서양 철학 과학 등이 인과론에 바탕을 두지만, Freud는 특히 인과론에 강해,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일은 그때 그 환경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모든 행동의 결과의 원인을 집요하게 캐는 것이다. 신Freud학파의 Harry Sullivan은 "우리 갈등의 원인은 대인관계와 성격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라며 "사람의 성격은 대인관계이며 대인관계가 우리의 마음이다"라고까지 했다.

동물들이 주위의 색깔에 보호색을 갖듯이 인간도 상대방의 반응에 방어하는 방어기전(defense mechanism)을 갖게 되어 사회가 용납되는 대리적 충격을 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다른 성격에 따라 각기 특징적인 방어기전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의심을 잘하는, 남을 잘 믿지 못하는 성격인 paranoid personality는 무의식적으로 투사(projection)란 방어기전을 쓴다. projection이란 자신의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이나 충동을 상대방에게 투사하여 '내가 무의식적으로 김 씨를 싫어하는데, 겉으로는 김 씨가 나를 싫어한다고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나도 모르게 떠넘기는 투사(projection)를 하는 행위이다.

화를 잘 내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이, 사회에 용납되는 격투기나 장작 때는 일로 행동을 하는 경우 대리 형성(substitution)이라고 하는데, 조금 비슷하나 다른 경우로 승화(sublimation)가 있다. 예로 외과의사의 수술이 무의식적 잔인성이, 학자의 연구가 본능적 호기심의 발로일 수가 있다. 물론 전부



송윤정 (인문 89)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이메일을 확인하니 추천서 청탁이 와 있다. 여전히 침대에 누운 채, 나는 거절한 명분부터 찾고 있었다. 8월 말경 까마득한 대학 후배가 인턴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간다고 제정신 한 끼를 사주며 인사를 나누었다. 내가 근무하는 부서에서 인턴을 한 것도 아니고 건물도 다른 어느 부서에서 일을 마쳤지만, 아직 공부하는 학생이니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라고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여학생이 혈혈단신으로 공부하느라 애쓰는 게 안타까워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인사말을 나누었다.

하지만, 추천서라니, 식사 한 끼 나눈, 한 시간이 전부인데 무엇을 근거로 추천서를 쓴단 말인가. 터무니없는 일이란 생각이 들었다. 거절할 생각을 하니, 대학원 때 전공 교수님께 결혼 주례를 부탁드렸다가 퇴짜를 맞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떠올랐다.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성장해 한국에 주례를 부탁할 만한은 사남이 없어 그이와 함께 내 전공 교수님을 찾아가겠다. 상황을 설명하며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교수님은 한마디로 거절하셨다. 나는 주례는 절대 서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나쁜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다 똑같이 거절해 왔으니 섭섭해 말라고 덧붙이셨다.

웬만한 일엔 별로 울지 않는 나인데, 눈물이 글썽거렸다. 냉혹하게 거절하시는 교수님 앞에 앉은 내가 너무 초라해 보여 바로 옆에 앉은 결혼할 남자를 보기가 부끄러웠다. 어색하게 인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새싹이 돋은 연초록 학교 교정이 너무 무심해 보였던 기억이 났다. 잊고 있었던 25년 전 그 순간이 왜 갑자기 떠올라 내게

가 아니고 그럴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기술한다. 또한 자기애적(narcissistic) 성격 소유자는 남의 비판을 참지 못하고 자기 방어적이고 자질이 세고 남의 결점만 잘 보이게 되어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다. 이런 성격이 공부를 많이하면 지식은 많아도 행동은 따르지 못해 자가당착적 될 수 있다. 많은 자칭 지식인에 많다고 보인다. 소아기호(pedophilia)나 가학/피학(sadomasochism)성격들도 유아적 성적욕구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결과로 본다.

우리는 각자 다른 유전적, 교육적, 문화적 환경으로 다른 성격의 소유자들이 만남을 이루고 있다. 이는 서로 갈등의 관계로 발전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성격을 서로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서로 공존하 여진다면, 성격 말씀대로 친구이 되지 않을 것일 것이다. 맹자의 말씀에 인간은 측은

추천서

추천서를 거절할 의사를 재고해 보도록 만드는 것인가.

또 다른 추억이 나를 흔들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입사하여 첫 휴가를 앞두고 있을 때였다. 직장 상사가 휴가신청을 허락하며 어디로 휴가를 가느냐고 물어 한국에 부모님과 친구들을 보러 다녀오라고 했다. 그러자 그가, "한국에 가면 자네 추천서를 써 준 직장 상사를 찾아가 꼭 고맙다고 인사드리게. 자네 입사할 때 전 세계에서 받은 이천 명이 넘는 응모자 가운데 자네를 최종 명단에 올렸을 때 내 보스가 우러를 표했어. 미국이나 다른 영미권 나라에서 교육을 받은 적도 일한 경력도 없는데 의사소통이나 문화나 적응을 잘 해낼 수 있겠냐고. 그때 내가 자네 직장상사가 쓴 추천서를 보여주어 그를 설득했지. 내가 이제까지 본 추천서 중 가장 감명 깊은 추천서였네!" 라고 말했다.

내 마음은 돌아서고 있었다. 그 어린 후배도 얼마나 고민을 하고 부탁을 하였을 텐데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은 그에게 상처를 남을 수 있겠다 싶었다. 출근하여 그 후배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녀의 학업에서나 전문적인 경력에서나 내가 그녀를 지켜본 일이 없어 내가 추천서를 쓸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녀가 굳이 내게 부탁을 해야만 한다면 자기소개서와 경력 등등을 보내주면 추천서를 쓰겠노라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에게서 경력과 소개서를 덧붙여 다시 부탁하는 이메일이 왔다.

이번 주말엔 올가를 단풍이 절정에 이를 거라 했다. 깊어 가는 가을이 내가 받은 것들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속삭인다. 창가에 앉아 뒤 마당에 물들어가는 나무를 내다보며 이 추천서를 써야겠다.

지심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성선설을 주장했다. 반면에 우린 수천 년 동안 이분법에 익숙한 문화의 영향으로, 좋고 나쁘고, 선하고 악하고, 옳고 그르다라는 관점에서 상대방을 판단하는 데 익숙하다. 그러나 현대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더 나아가 다양함의 미덕을 주시하는 postmodernism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해 우리 주위의 관계에서 즉 가장 중요한 부모 자식 간, 부부의 관계에서, 사회에서는 계층 간, 노소 간, 이념의 차이에서 벗어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역시 사지하면 원원하는 가정, 사회 국가가 되리라 확신한다

[필자 주: 좀 더 자세한 성격유형과 방어기전에 관심이 있다면 미국 정신과학의 5차 진단 매뉴얼과 Google 등 인터넷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박헌렬 (공대 67)

해변을 둔 경포호

썩아 썩~, 모처럼 시원한 소리를 듣는다.

밤이 깊어 캄캄한데 파도소리에 귀를 곤추 세운다. 인적이 없는 공간, 먼 바다에서 외로이 반짝이는 게 있다. 등대 빛이다. 저 빛은 지나는 선박에게 위치와 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 노릇을 하리라. 하늘엔 별 한 점이 없으니 구름이 잔뜩 끼었나 보다. 등대는 구름을 헤치고 먼 우주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문득 저 불빛과 함께 우주와 소통하는 자아를 발견한다.

윤동주의 시 '별 헤는 밤'이 떠오른다.

가을 속의 별 하나하나를 헤아리며 추억과 사랑, 쓸쓸함과 그리움을 노래한 구절은 계속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더욱 애절하다. 잊어진 옛 추억이 파도소리에 실려 하나씩 아스라이 나타나곤 한다. 비 내리는 아침, 빗소리를 벗 삼아 지례예술촌 고택 기와담벼락을 돌며 선비정신에 귀 기울이던 모습, 가을 청계산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과 애길 나누는 시간, 그리고 마르세이유 부근, 은빛으로 반짝거리는 지중해 해변에서 미래 꿈을 설계하던 추억, 파리 노트르담 사원에서 풍뎉프(Pont Neuf)까지 센느 강변을 걸으며 이방인의 외로움에 젖던 순간 등..... 모처럼 행복한 밤이다. 내 영혼이 맑아진다. 번잡하고 짜든 도시 생활을 벗어나 적극적인 바다와 만난 여행이 여간 고마운 게 아니다. 알록달록한 가을, 경포 해변에서 하룻밤이 주는 선물이다.

아침 일찍 자동차편으로 다섯 부부가 강릉으로 갔다. 낮에는 경포호를 찾는다. 공원 입구엔 호수 위를 날렵하게 날아와 앉는 철새를 찍으려는 사진작가가 요지부동이다. 습지에 조성한 탐방로로 들어섰다. 왼쪽은 운하 같은 물길이 있고 오른쪽엔 수풀이 무성하다. 맞은편에서 숲을 가르키며 꽃향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젊은 여성들의 표정이 물들어가는 나뭇잎과 어울려 더욱 예쁘다.

바삭 바삭 이파리들로 가득 메워진 가시연 습지를 뒤로 하고, 호숫가에 화강암으로 만든 시비(詩碑)와 조각공원으로 발길을 잇는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놓인 시비와 조각 작품들이 파란 호수, 푸른 하늘, 오색의 수목, 푸른 소나무와 어우러진 풍경이 이채롭다.

엄성기의 시비 '꽃이 웃는 소리'는 네모난 화강석에 새긴 시구절 바로 옆에 뺨 뚫린 동그란 원과 반대편엔 반원형을 붙여놓은 조각이 개성미가 넘친다. '산 위에서'라는 김원기의 시는 통통하게 살찐 세모난 작품

에 새겨져 있고, 동그란 조각 가운데 정순웅의 시를 적은 '강문어화(江門漁火)'와 같은 작품은 호반을 산책하는 이들에게 시상(詩想)을 선물하리라.

호숫가 바로 옆을 따라 줄지어 늘어선 캐리커들이 눈길을 끌었다. 우리말로 처음 쓴 소설 『홍길동전』, 16세기 허균이 탐관오리의 가렴주구(苛斂誅求)와 그들을 상대로도 적절해 공평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의적의 활동을 그린 소설이다. 줄거리에 나오는 중요 장면들을 조각 작품으로 회화화(敍畵化)해 놓았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홍청망청 포졸들', '재물을 나눠주는 활빈 당원들', '활빈당에 곤장을 맞는 탐관사도', 그리고 '재물을 나눠받고 좋아하는 백성들'과 같은 코믹한 조각들은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에게 흥미를 무척 돋구리라.

강릉엔 또 푸른 소나무 무리들이 산재해 있다. '강릉 솔향'이라는 표지판이 보인다.



기상도 늠름하게 하늘로 솟구친 소나무 숲속을 지나려니 뭔가 눈길을 끈다. 솔밭 사이사이에 솔래잡기 하는 조각들이다. 붉은 티셔츠를 입은 남자 아이가, 두 손을 꼭지 끼고 소나무에 이마를 댄 채로 숫자를 세고 있다. 옥색 치마를 입은 캄캄하게 생긴 여자 아이가 숨을 곳을 찾고 있는 조각 등.... 얼굴 표정, 손동작과 몸동작이 실감나게 표현된 작품이라 어린 시절에 놀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나는 파도 소리를 떠나 창문을 열고 들어가 별을 다시 헤며 잠든다.

새벽에 일어나 발코니에 나가보니 바다가 연주하는 교향곡은 적막 속에 여전하다. 등대가 아직도 반짝거린다. 망망한 바다위에 서 곰질대는 불빛, 서녘이 눈에 가물거린다. 저 빛은 먼 바다로 나가 만선의 기쁨으로 쿵노래를 부르며 귀향하는 어선이 아닐까.

'썩아 썩' 소리를 더 듣지 못하니 무척 아쉬웠다. 일행은 옆 동네 강문 진도배기 마을에 있는 솟대다리로 갔다. 아치형 다리에 올라서니 몇 km 해변가 저 멀리에 속산의 콘도가 보인다. 다리 부근에선 어제보다 사나워진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치솟고, 웅장한 음악을 울리며 흰 물보라를 시시각각만 들어내고 있다. 이 작품이야말로 생동감이 절절 넘치고 변화무쌍해 압권이다.

이 아름답고 요묘한 자연현상이 하도 궁금해서, 우주공간에서 등대 신호를 받은 외계인이 언제쯤 찾아오려나. 이 기묘한 풍경이 궁금해 좀이 쑤실텐데.



최용완 (공대 57)

나의 문학인생 '57년'

고등학교 때 시를 쓰기 시작하였지만 내 인생에 문인이 되는 생각은 한 번도 안했다. 내가 다닌 광주 서중학교는 일제 때 학생 독립운동을 한 전통이 있고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1957년에 기념탑이 세워졌다. 국문학 선생님이 기념탑에 관한 시를 쓰라는 말씀에 시를 썼더니 고등학교 졸업식 출판물 표지에 나의 시가 기념탑 사진과 함께 실렸다.

서울공대 건축 공부하며 럭비와 유도 선수 노릇하는 틈에 시를 쓰기 어려웠고 유학시절에 영어 배우기 벅해서 좋아하는 시를 쓰지 못했다. 하지만 어쩌다 쓴 시가 곧잘 신문이나 잡지에 올랐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 해온 듯하다. 시를 쓰는 시간이면 시상에 젖어 상상의 세계 속에서 느낌이 넘쳐 기쁨, 슬픔, 분노, 희열 사이에 방황하는 황홀경에 빠지기도 한다. 나의 생각과 느낌이 남에게 감동으로 전해질 때, 한없는 기쁨이 있기에 시를 쓰는 취미를 갖게 된듯하다.

미네소타 주립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후 미국에 이민하여 건축 디자인을 했는데 시 쓰는 창작도 같은 맥락의 예술이었기에 더욱 재미있었다. 시제가 떠오르면 곧 메모지에 적어 호주머니에 보관하였다가 컴퓨터 앞에 앉으면 곧 쓰곤 했다. 이렇게 쓴 시가 100편 즈음 되었을 때 한국의 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한 신세훈 선생을 LA에서 만났다. '코리아 에어 비빔밥'을 비롯한 10편의 시가 2011년 한국에 '자유문학' 봄호에 신인상 작품으로 실리며 나는 드디어 한국문단의 시인으로 등단하였다.

저명한 평론가이며 '에세이 포레' 발행인 겸 편집인 한상열 선생은 나의 수필 '미국의 개 이야기'를 역시 2011년 봄호에 실어 신인상 당선작가로 한국 문단에 수필가로도 등단하였다.

그런 후 200편쯤의 시를 썼을 때, 한국문단에 오직 한 사람뿐인 시인, 수필가, 소설가, 희곡작가, 평론가의 거장, 홍승주 선생을 만났다. 그 분이 나의 시를 보고 시집출판을 권고하여 2013년 6월 15일에 시집을 출판하였다. 젊었을 때부터 함께 운동하는 친구들이 내가 호랑이 띠 해(1938) 가을(9월)에 태어났다고 추호(秋虎)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다. 그리고 내가 자라난 광주의 무등산을 회상하여 시집 이름을 '무등산 가을 호랑이'라고 정했다.

공대 건축과를 마치는 무렵 졸업 논문 '한국

의 건축양식'이 김정수 교수님의 관심에 들어 서울 남대문(崇례門) 중수공사장에서 2년 반 동안에 조원제 도편수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 김재원 박물관장을 비롯한 한국

의 저명한 역사학자들을 만나 역사공부에

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건축가로서 세계 여

러 곳을 다니며 한국의 고인돌 건축물이 세계에서 가장 일찍 시작한 문명이었음을 알게 되어 역사수필을 많이 썼고 '새로운 세계를 보는 눈'이라는 이름으로 전자책www.yongwandoi.com'를 만들어 실어놓았다.

이민생활을 통해서 겪는 한과 슬픔을 글로 승화시키며 자신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다시 찾는 모임이 되었다. 한국문인협회와 연결되어 지구문학, 한미문단, 회원작품집을 발간해왔고 지난해부터 연구소 소설가와 힘을 모아 글센터 문학동우회는 더욱 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50여 명의 시인, 수필가, 소설가, 회원들이 한국과 미주 문단에 등단하였고 금년 창립 10주년 축하 작품집을 내려고 한다.

1961년에 서울 남대문(崇례門)에서 시작한 나의 건축인생은 2008년에 불에 탄 남대문을 다시 건설하는 일로 한국 역사와 문화를 세상에 알리는 노력에 전심을 기울리게 되었다.

2017년에 "동아세아는 모든 문명의 어머니"를 한국에 <자유문학>에 연재하기 시작하였다. 2018년 미주 문인협회 제1회 인문강좌의 강사로 초빙되어 책 내용을 Power point 슬라이드로 설명하였다. 영문책자 출판

을 위한 번역이 진행되고 책 내용을 장편 소설로 준비하고 있다.

지난 57년 동안 공부한 역사의 진실, '한반도는 인류문명의 요람'을 세계에 알리는 노력에 내 목숨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80세



정도현 (공대 57)

Life long Journey of the Sports of my Passion --- HOCKEY

IN KOREA

When I saw the Korean Men's National Hockey team on TV at Pyoung Chang Olympic, I can not help but cry with overwhelming emotion. It's been a long time since the days of skating frozen pond & rice paddies. Particularly seeing Jim Paek (head coach) & Richard Park (assistant coach) both of whom I had an intimate relationship some time ago, it made me immensely proud.

It, all, started at the frozen Han River in the dead winter of 1954. I saw a bunch of young American G. I. playing shinny hockey. I was fascinated. It was such a pleasure seeing someone playing sports on skate with stick and making fast jig-jag moves while carrying the small black object. Since then, I am forever hooked on this fascinating sport called "HOCKEY?".

Believe or not, the sports of hockey existed in Korea before the Korean War and resumed after. No doubt, one can imagine, it wasn't much. I remember 2 famed high school, Whimoon & Kyunggi, were the big rivals. Yonsei & Korea Univ., I think, had teams. There were no indoor rinks then. The venues are frozen ponds, rivers & rice paddies. I went to Kyunggi, High School, and even though I skated I wasn't good enough for the team. Instead, I played Rugby.

My hockey career started when I entered SNU, because I was the only one with some skating ability made to SNU. All the other regulars went to other colleges. SNU had a hockey team, but it was a sort of rag-tag affair compared to the more established teams of Yonsei & Korea Univ. I became the captain on my junior year, and thanks to the supply pipeline of quality players from Kyunggi, we began to build a decent team. One of those was none other than past SNUAA President Lee Young Mook at Washington DC. My final year, we achieved a runner up spot of Korean Collegiate hockey Championship (we beat Yonsei in Semi but lost to Korea Univ. in the Final). After graduation, I coached team for 2 years while I was serving as a Korean Naval Officer. In 1964 I came to US to study at Graduate School in Columbia Univ.,

1961년에 서울 남대문(崇례門)에서 시작한 나의 건축인생은 2008년에 불에 탄 남대문을 다시 건설하는 일로 한국 역사와 문화를 세상에 알리는 노력에 전심을 기울리게 되었다.

2017년에 "동아세아는 모든 문명의 어머니"를 한국에 <자유문학>에 연재하기 시작하였다. 2018년 미주 문인협회 제1회 인문강좌의 강사로 초빙되어 책 내용을 Power point 슬라이드로 설명하였다. 영문책자 출판

을 위한 번역이 진행되고 책 내용을 장편 소설로 준비하고 있다.

지난 57년 동안 공부한 역사의 진실, '한반도는 인류문명의 요람'을 세계에 알리는 노력에 내 목숨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80세

of my private architectural practices. He passed away some years ago. I am forever grateful to him.



B

While I was playing hockey, somehow I got involved hockey related enterprises. One of my hockey buddy was a prominent lawyer who represented many NHL players. He introduced me to NHL great, former NY Ranger, Phil Esposito, and we got into the business of hockey team ownership. We bought the Canadian Major Junior team Sault-St-Marie (aka Greyhound) which was famous for producing many NHL players including the greatest Wayne Gretzky. I guess our business skills are not as good as our hockey's. We lost some serious money, and got out. Couple of my hockey buddies & I built an Ice rink in Milford, Conn. For 45 years, it is still operating and making money (rather not losing money).

KOREAN - AMERICAN HOCKEY ASSOCIATION

I became president of the Korean - American Hockey Association (KAHA) in the middle of 1980. This organization was based Chicago area and founded by Mr. Suk Tae-Jing. early 80s. Out of 4 major sports in America (Baseball, Football, Basketball, Hockey), sports of hockey fits well to the physique of Korean kids. Body size is not the main issue, and many 2nd generation Korean kids are gravitated to hockey, particularly in Chicago area, and that's how this organization began.

Almost every year we participated the Korean Winter Sports Festival in February and played hockey against Korean as well as visiting Canadian teams. This is where I met Jim Paek, then a major junior player at Oshawa General, and later drafted by NHL's Pittsburgh Penguins and went on to win Stanley Cup. He served couple of times as my assistant coach. He was such a fine young gentleman, I liked him and we became good friend. I am so happy that he did such a good job bringing Korean hockey to world class.

As for the Richard Park, I learned through the "Hockey News Magazine" that there is a fabulously talented young kid in LA area and he has Korean heritage. I finally able to recruit

him to KAHA team for Korean Trip. He played through Canadian Junior program and later played several NHL teams including NY Islanders. I stayed on as president of KAHA for several more years until most of the kids went on to high school.

CONNECTICUT YANKEE YOUTH HOCKEY



C

I founded a youth hockey organization called "Connecticut Yankee (CY)" in early 1990s. I had a selfish reason doing this. I knew the level of hockey being thought in the regions of hockey hot bet such as Boston or the most of Canadian cities. We didn't have it in our area, so I wanted create an elite program to benefit my own kid and some other talented boys. We had some stumbling starts, but improved steadily, and finally catch up to other regional elites. As our reputation grew, many talented kids outside of our region wanted to join us and we became a power house. We won numerous prestigious tournaments. Many of our kids went on to become Div.1 player with scholarship, and few of them went all the way to NHL that include the Stanley Cup MVP, LA Goalie, Jonathan Quick.



D

Hockey is the fastest team sports with heavy body contacts. I had my share of injuries & setbacks that include broken neck, torn ACL, & loss of front tooth, etc. But every time I came back. I loved this sports so much, I'll do it all over again. I treasure the moment at the locker room, you are spread naked on the bench, totally exhausted, sometimes bloody & painful, but you are happy & satisfied that you gave it "ALL".

ps: I attached 4 picture. **C**, **D** are for my Men's hockey. The other **A**, **B** are the kids I coached during Conn. Yankee program when they were young and they were grown up to college level.

지부 소개

미네소타 (Minnesota)



Mississippi Headwaters



Boundary Waters



Mall of America



Guthrie Theater



Mayo Clinic



MN State Fair



Winter Carnival



2017년 연말총회 및 송년파티 단체사진

1. 동창회 설립과 커버지역

미네소타 서울대 동창회는 1994년 동문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초대회장에 권승림(52), 총무에 조형준(62) 동문이 선출되었고 2017년 1월에 황효숙 (사대 65) 회장과 이희운 (농가정 84, 2017년), 양한승 (임산공 89, 2018년) 총무를 주축으로 현 18대 회장단이 출범하였다. 미네소타 동창회는 미네소타주를 위시하여 위스콘신, 노스다코타 등 인접 주에 거주하며 각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수학한 동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학부 졸업후 20년 이상 경과한 동문과 (이사회 멤버) 20년 미만 동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현재 약 50여명의 이사회 멤버가 회장단과 함께 동창회의 주요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 미네소타 프로젝트

'Minnesota Project'는 미국정부의 해외대학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선진 교육 환경 조성에 일조하고자 미네소타 대학교가 미 정부에 의해 발탁되었다. 당시 서울대 최규남 총장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1955년부터 1961년까지 7년간 서울대학교 농과, 의과, 공과대학을 시작으로 수의, 간호, 보건, 행정대학원이 추가되어 진행되었다. 교수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총장 1명 포함 총 218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71명의 석사, 15명의 박사를 배출하였다. 서울대학교의 물리적 환경이 복구 개선되었고 대학 교육의 현대화와 한국 전체의 고등 교육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미네소타 대학교는 지금까지 7,000명이 넘는 한인 유학생을 배출하였다.

2. 동문 멤버의 숫자와 연령분포? 보통 모이는 숫자는?

현재 약 120여명이며 연령분포는 20대에서 80대까지로 넓은 폭을 보이고 있다. 불철야유회와 연말총회 같은 대규모 행사의 경

우 50-70명 정도가 모이고 있다.

3. 동문들의 삶의 모습 (직업, 취미, 사회봉사 등)

미네소타는 교육, 의료, IT, 첨단기술산업 등이 발달되어 있고 주민의 평균적인 교육수준이 미국내에서 1-2위를 다투는 미국 중북부의 중심지역이다. 서울대 동문들은 정부기관이나 다양한 연구기관, 대기업 (3M, Seagate, Honeywell, Medtronics 등), 병원 등에서 일하거나 대학교에서 교수, 연구하거나 포스닥으로 연구하거나 대학원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다. 개인 사업에 종사하거나 변호사, 성악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동문들도 있다.

취미로는 많은 동문들이 골프, 테니스, 달리기, 스키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고 있으며, 캠핑, Kayak, 낚시 등 outdoor activity에 참여하고 있다. 음악감상, 악기연주, 노래, 여행, 사진촬영, 글쓰기 등 다양한 문화 활동에 열심인 동문들도 있다.

미네소타주는 미국에서 사회봉사활동이 가장 활발한 주중 하나이다. 우리 동문들도 다양한 사회봉사 단체나 Nonprofit Organization에 참가하여 시간과 열정을 쓰며 봉사를 하고 있다. 미네소타 한인회나 한인봉사회 등에 회장이나 이사 등으로 섬기며 한인 복지에 기여하고 있고, 미네소타 Chorale, 미네소타 Chamber Music 등 음악기관에 이사로 참가하여 미네소타 문화발전에 기여하거나, 로터리클럽 활동, 국내외의 선교활동을 하는 동문들도 상당수이다.

4. 동창회의 활동 상황

◆ 연말총회 및 송년파티 (12/16/2017)

동창회의 가장 큰 행사로서 총 79 명의 동문들과 가족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식사후 열린 총회에서 장학금 수여, 이수진(

국약96) 동문의 가야금 연주와 강연이 있었다. 각종 오락과 경품 추첨 등으로 동문들 간의 우애를 다지는 시간으로 보냈다. 2018년 연말총회 및 송년파티는 12월 15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 이사회 (3/10/2018)

회장단 및 이사들이 가족동반으로 참석하여 융정식(농화학86) 동문의 특별 Seafood soup과 Pasta를 포함한 진미의 음식을 즐겼다. 윤성주(역사80) 동문의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강연에 이어 2018년 행사 계획, 예산안, 차차기 회장 후보, 장학금에 대해 토의와 의결을 하였다.

◆ 서울대 성낙인 총장 미네소타 방문 (4/26/2018)

연례행사는 아니지만, 2018년 4월 26일 서울대 성낙인 총장의 역사적인 방문이 있었다. 성총장은 미네소타주 3M에서 진행된 Nobel Prize Inspiration Initiative 행사 참석, 미네소타대학 총장 방문을 마친 후 미네소타 동문들과 만찬을 나누고 강연 및 대화를 하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 춘계 야유회 (5/5/2018)

회장한 봄날씨에 46명의 동문과 가족이 맛있는 음식과 다양한 바베큐를 먹으며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오락, 경품 당첨 등으로 동문의 정과 웃음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 3개교 (서울-연세-고려) 골프대회 (7/21/2018, White Eagle Golf Club, Hudson, WI)

◆ 여름 골프대회 (8/25/2018, Bunker Hills Golf Course, Coon Rapids)

◆ 가을 골프대회 (10/13/2018, Victory Links Golf Course, Blain, MN)

◆ 대학원생을 위한 학술 세미나 (9/7/2018)



춘계 야유회

매년 가을학기 개강과 동시에 미네소타 한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학술세미나를 열고 있다. 1) Career development in academia: Getting doctoral degree and the beyond, 2) 국제기구 취업을 위한 장/단기 전략, 3) 미국 취업을 위한 이력서와 인터뷰 준비 4) 대학원 생활의 시작과 미래 진로 결정 등 여러가지 주제로 융정식(농화학86) 동문을 비롯한 연사들이 강연과 Q&A 시간을 가지고 있다.

5. 동창회의 활동 (동문이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 중 타 지부에게도 권하고 싶은 자랑스러운 일이 있다면?

◆ 장학금 지급

장학위원회에서 매년 3명의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대학원 코스의 정진을 위해 장학금을 12월 연말총회 및 송년파티에서 수여하고 있다. 장학금 수여자들이 많은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

◆ 학술 세미나 개최

매년 가을학기 개강을 맞아 학생동문 및 한인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미국대학에서의 성공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커리어 개발을 위한 준비 등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강연과 관련자료는 학계 및 기업에 취업한 동문들이 자원해서 봉사하고 있다. 열띤 Q&A session 으로 마무리 많은 대학원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 젊은 동문과 선배와의 대화

젊은 동문들을 위해 원로선배들이 자원하여 식사를 대접하며 학교선배로서, 또한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가지 유익한 말씀을 해주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선배와의 교류를 촉진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 멘토/멘티 제도

학생동문과 같은 전공분야의 선배 동문의 소통을 통하여 진로 탐색 및 삶의 방향 등에 실질적인 도움과 조언을 해주는 유익한 제도이다. 경우에 따라 멘토/멘티의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수도 있다.

◆ 학생동문 모임 지원

동창회비에서 학생 동문들에게 학기중 친목의 시간을 갖도록 년간 약 \$1000을 지원한다. 이 활동들에 힘입어 젊은 학생동문들이 동문회와 친화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동창회 행사에도 더욱 참여도가 높아졌다.

◆ 골프대회

년간 3회 개최하는 골프대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리더역할을 하는 모임으로서 동문들과 지역사회 한인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6. 미주동문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지역의 관광명소, 문화/정신적 가치, 교육 역사 등. 이 중에서 특히 지역을 상징하는 몇 가지를 든다면 무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미네소타주는 대한민국 면적의 22배의 크기에 약 56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스칸디나비아 계통의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인구에 비해 Vikings Foot-



학술 세미나

ball, Twins Baseball, Timberwolves Basketball, MN Wild Ice Hockey 팀 등 4개의 메이저 스포츠 팀을 가지고 있다.

◆ 미시시피 Headwaters

미국에서 가장 긴 강의 하나인 미시시피 강은 이타스카 주립공원 (Itasca State Park)의 샘물이 만든 작은 호수에서 시작해 미네소타 주를 관통하며 남쪽을 향해 1,126km를 굽이쳐 흘러 멕시코 만 (Gulf of Mexico)에 합류한다.

◆ Boundary Waters Canoe Area Wilderness (BWCAW)

미네소타주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천연 자연 그대로가 가장 잘 보존된 자연보호지역이다. Canoeing, hiking, 낚시, 캠핑 등으로 미국에서 가장 선호되는 wilderness 중 하나이다.

◆ Mall of America (MOA)

미국 최대 규모의 쇼핑 및 엔터테인먼트 복합물이다. 600개의 매장과 레스토랑 이외에 Nickelodeon 어린이 놀이공원과 Sealife Aquarium이 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미국 각처에서 하루의 쇼핑을 위해 비행기가 운행되고 있다.

◆ 문화의 중심지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지역을 예술의 천국으로 만드는 유명한 music hall, playhouse, 미술관, 박물관 및 갤러리가 존재한다. 두개의 (Minnesota Orchestra 와 St Paul Chamber Orchestra) major symphony orchestra가 있으며 award-winning chef들의 top restaurant 이 많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밥 딜런 (Bob Dylan)과 슈퍼스타 프린스 (Prince)의 고향이기도 하다.

◆ Mayo Clinic

Rochester에 자리잡은 미국의 최우수한 병원 중 하나이다. 세계적인 명성 때문에 대통령, 왕 등 많은 세계의 지도자들이나 유명인들이 와서 치료를 받는 곳이다.

◆ Minnesota State Fair: "The Greatest Minnesota Get-together"

8월말부터 Labor Day 까지 12일간 열리며 미국에서 가장 크고 관람자 수가 가장 많은 박람회이다. 미네소타의 농산물, 예술품, 공산품들이 전시되고 각종 연주회와 쇼, 음식, ride가 있다.

◆ Saint Paul Winter Carnival

아마도 미네소타에서 가장 인기있는 축제인 Winter carnival은 매년 미네소타의 트레이드마크인 영하의 추운 겨울 날씨에 열리는 축제이다. Ice Sculpture 경연대회, Torchlight parade 와 medallion hunting 등 미네소타인들에게 must-see event이다.

7. 동창회 운영에 어려운 점? 미주총동창회 본부가 무엇을 어



젊은 동문 모임

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하면 동문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을까를 알려줬으면 좋겠다.

8. 기타, 하고 싶은 말

개인적으로 바쁜 가운데에도 미주총동창회를 위해 혼신을 다해 열심히 활동하시는 윤상래 회장님을 비롯한 미주총동창회 임원 여러분, 그리고 동창회보의 편집장이신 김원영 동문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미주 총동창회가 동창회보를 통해 각 지부의 소식과 활동상황을 널리 알리고 타 지부와의 연결고리가 되어 줌에 감사를 드립니다. 글: 회장 황효숙(사대65), 총무 양한승(임산공89)

현 임원진: 17.1.1 ~ 18.12.31		역대회장	
직책	성명	년도	회장
회장	황효숙 (사대 65)	1994-1996	권승림(52)
차기회장	송세진 (치대 78)	1997	주형돈
감사	김형석 (심리 92)	1998-2000	이창재(56)
총무이사	양한승 (임산공 89)	2001	김필주(56)
재무이사	조숙자 (간호대 86)	2002	김태환(58)
학생간사	이상민 (경영 10) 유상욱 (화학교과 06)	2003	왕규현(56)
체육간사	유기용 (재료 03)	2004	권학주(59)
골프간사	양한승 (임산공 89)	2005	김권식(61)
여성간사	서하람 (경영 06)	2006	조형준(62)
학술간사	변정민 (기계설계 88)	2007	주한수(62)
OB간사	김권식 (공대 61)	2008	배병철(65)
홍보간사	손창수 (경영학 86)	2009	남세현(67)
상임고문	김권식 (공대 61)	2010	김영석(73)
상임고문	남세현 (회공 67)	2011	신학철(75)
상임고문	신학철 (기계 75)	2012	정은욱(75)
		2013-2014	변우진(81)
		2015-2016	조해석(84)
		2017-2018	황효숙(65)
		2019-2020	송세진(78)



가을 골프 대회



1차 이사회



성낙인 총장 방문



이홍빈 (의대 57)

“Hello, 여름 지나니...”

제게
왜 오늘 난
꽃 한번 보내구 싶네

연한
아주 아주 연한
붉은 색

연한
아주 연한 붉은색
Gladiorus 다발루 보내구 싶네

왜
촉촉한 꽃다발 하나
건네구 싶네

흰칠 키 맞춰
수려한 여름 꽃
Gladioruses

저 받아서
화사한 그리움
하필 그 꽃으루 전하구 싶네

뭘
빨갭게 열정일거 없이
화려할거두 없이

저 받아서
환한 웃음으루
키 큰 화병에 어루 담을

그리움으루
화사한
왜 하필 그 꽃으루 건네구 싶네
(연한
아주 아주 연한
기억으루 화사한 모습이네.)

기고글 모집합니다

동문 여러분들의 기고문이나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제 어느 형태나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동창회는 매월 회보의 1면 톱 기사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월 호에 특별 주제를 정하여 그에 맞는 기사나 기고문을 동문 여러분으로부터 받길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시간을 내시어 1면 톱기사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는 기사 및 원고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월 호에 맞는 주제에 대한 기고 및 원고를 저술하시어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창회보는 동문이 주인이 되어 만들어 가는 회보입니다.

어느 특정인이나 그룹이 多數 多回 지면을 차지하는 그런 회보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미주동창회 회장 윤상래 드림

월별 1면 게재 내용 및 주제

Month	1면 게재 내용	특집 주제
2018년 11월호	모교 홈 커밍 데이 참가기사	홈 커밍 데이 참가기 (소감 및 제안 등)
12월호		울 1년의 회고
2019년 1월호	2019년 신년 설계 및 희망	* 지역 동창회장 신년 인사 (원고 모집) * 동문들의 신년 설계와 희망 (원고 모집) * 과학 기술의 미래에 대한 동문들의 기고 또는 취재 글
2월호		미국을 보는 눈: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미국에 사시면서 경험하고 느끼신 사회)
3월호		3.1 운동 100주년과 그 의미
4월호		4.19의 의미
5월호		5.16의 의미
6월호		6.25 한국 전쟁 (회상 및 증언 남기기). 한반도 민족 갈등 해소 방안 제언.

보내실 곳: 이메일 news@snuaa.org

새로운 기획 시리즈

동창회에서는 동문들의 다양한 시각과 관점, 그리고 소중한 경험 등을 담은 기고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 각 시리즈 토픽을 참고하시어 많은 기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문의 창> 신설
1면 하단에 박스 칼럼으로 <동문의 창>을 신설했습니다. 500단어 내지 750글자(스페이스 포함) 정도로 동문들의 견해나 ‘사회를 바라보는 눈’ 정도의 글을 받습니다.
(분량은 모교 동창회보 1면의 “관악춘추” 보다 약간 적은 것을 희망합니다)

미주 동창회원들이 처음 미국 땅에 발을 디딘 날에 대한 회고

인생 후배들에 주고 싶은 조언 이나 교훈 - 그들의 보다 나은 미래 향해를 위하여
*예: 후배들에 교훈을 준다면...? 인생의 요체는 무엇인가..

미국에 살다보니...
(미국생활에서 감행 받은 일이나 실수한 것 등 일화 소개)

동문 자녀들의 미국 생활의 소개나 인터뷰 글 받습니다.
(동문의 후예로서 미국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등)
예: 회보에 이미 실린 기사
- 이상윤(David Lee, 프린스턴대 부총장, 이성수 동문(사대 55) 아들 (2013년 7월호)
- 미셸 리 전 워싱턴 DC. 교육감, 이상열 동문(의대 65)의 딸 (2009년 8월호)

지역 동창회 소개 계속 받습니다. (아직 소개 되지 않은 지부입니다)
- 코네티컷, 북텍사스, 미네소타, 매리조나, 오레곤, 오하이오, 유타, 중부텍사스, 플로리다, 캐롤라이나, 테네시, 하와이, 하트랜드, 휴스턴



서중민 (공대 64)

대장부의 눈물

지난달 말경에 시카고의 김정수 동문의 강 권과, 마태 복음 성경 말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위해 방문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떠올라, 최정웅 (공대 64) 동문과 Penna 서쪽에 있는 Moshannon valley Correctional Center로 향했다. MVCC는 동문 이현석 (공대 84)이 지난 일년 간 옥고를 치르고 있는 곳이다.

감옥이라는 곳에 관한 궁금함 보다는, 이현석 동문이 옥고라는 어려운 시련을 어떻게 견딜까 하는, 걱정은 있었다. 허나, 그날이 놀라운, 기쁜 날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중으로 된 날카로운 가시철망 뒤에 따사로운 햇빛에 빛나는 꽃밭이, 담장 안쪽에 있는 것이 이상하게 보였다. 꽃밭을 죄수들이 가꾼다니, 예상하는 일반 감옥은 아님이 분명했다.

접견실에 나온 이 동문은 건강해 보였고, 감옥생활을 하는 사람 같지 않아, 내심 안심을 했다. 그는 이직적으로 생겨, 학자같은 인상을 주었지, 결코 미국 정부가 소송 했듯이 말수, 사기를 할 사람같지 않았다. 정열적으로 소송사건이 잘못되었다는 변호, 앞으로 출옥 후 (1/15/2019 예정)의 장래 계획들을 뚜렷하게, articulate하는 그를 보며, 참 똑똑한 대한 남아임을 새삼스끼며, 오히려 그를 자랑스럽게 여김은 내가 그에게 흘린 것은 아닐까?

새로운 air bearing을 발명하고, 고효율 (97.5%)의 inverter를 발명한 애기 등 엔지니어들이 놀랄 만한 발명품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에게 매료된 듯 싶다. 이런 인재를 낸 서울대가 자랑스럽기도 했다. 또 자기의 소송 기록 6만 장을 하루 16시간씩 들여서 다 읽고, 자기 소송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고 했을 때, 그의 끈질김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동창회들이 사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필자가 놀란 것은, 명랑하던 그가 시카고 동창들 얘기를 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판사가 보석을 결정하는 날에 시카고 동창들이 범정을 넘치게 모였기에, 판사가 검사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에게 보석을 결정했노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시카고 동문들에게 찬사와 존경을 보내고 싶다. 2년의 보석기간 동안 소송문서를 읽을 수 있었기에, 소송에 기록된 사항이 잘못된 것을 알았고, 검사로 하여금 그 사항을 삭제하게 만들 수 있었던다.

이 동문은 K turbo (kturbo.co.kr)라는 회사를 청주에 설립해, 대통령상 등 많은 상을 받았고, 한 해에 천만불이상 수출을 해 수출상을 받기도 했다. 2009년에 송풍기 등 장비를 미국에 수출했었다. 한국에서 조립한 부품에 Assembled in USA 라는 표지를 붙여 미국에 수출한 잘못으로 미국 송환을 받게 된 것

이다. 소송내역은 미국의 ARRA(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s--Federal funds)를 가져서, 미국법을 저촉했다는 죄목이다. 그러나 ARRA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법이지, 하청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불행이도 한국정부가 송환장의 내용을 검토 않고, 2015년 4월에 이 동문을 송환하으로써, 이 동문의 고난이 시작된 것이다.

허나 성경의 창세기의 요셉처럼 역경을 겪고, 정금같은 믿음을 가지고 출옥할 것을 믿는다. 미국 정부나, 한국정부를 원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하나님님이 하셨다는 믿음을 보니, 그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또 회사를 다시 일으켜, 한국의 산업계를 훌륭히 이끌어 나갈 것을 의심치 않는다.

장래의 일꾼을 복돋기 위해, 동문들의 재정 후원을 부탁해 본다. 재정 후원은 시카고의 김정수 동문 (773-573-9838)에게 보내시면 이 동문에게 전달된다. 그의 회사는 법정 관리에 있고, 자녀들도 학교를 중단하고 있을 정도의 고난을 겪고있다.

• • • • •

회사 방문, 가족과의 만남

윤상래 (수의 62)

위의 글은 서중민 (공대 64, 필라 지부) 동문의 옥중 방문기로 여기에 내가 감히 첨부할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나 청주에 있는 Kturbo (대표 이현석) 회사를 서울대 홈커밍시 방문, 아들 이태준, 부인 박 여사(음대 75)를 만나 보았다는 것을 덧붙인다. 가장으로, 생활의 근거인 사업체의 책임자인 남편, 아버지를 걱정하는 것은 기술할 필요도 없다.



이현석 동문 아들 이태준 군과 함께

찾아간 Kturbo는 크고 웅장하게 지어져 있는 2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는 사무실 및 디자인실, 다른 하나 더 큰 빌딩은 생산 공장이었다. 종업원은 150명에서 20명으로 줄어서 Skeleton Crew로 가동되며 고성능 컴프레서(compressor)를 생산하는데 이태준 군의 설명이 “미국에서 생산되는 compressor는 그 용도가 너무나 다양해서 그 시장은 무궁 무진이다”라 했다. 특히 부품의 마찰 부분에 lubricant를 쓰지 않



이태상 (문리 55)

내 인생의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내 인생의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Will I Ever Find The Love of My Life?) 이는 2018년 10월 21일자 뉴욕타임스 일요판에 실린 ‘룩산에게 물어봐 (Ask Roxane)’라는 인생상담란 기사 제목이다. 한 아이의 엄마인 43세의 미혼 여성 독자가 44세의 미국 여성 작가 룩산 게이(Roxane Gay)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영원한 수수께끼라 할 수 있다. 수많은 노래와 오페라, 연극과 영화, 시와 소설 그리고 수필로도 다뤄진 절박하고 절실한 소재가 아닌가. 사람이 한 평생 살면서 수많은 사람과 사물을 사랑할 수 있지만, 가장 자연스럽고도 특별한 사랑을 ‘로맨스’라 일컬어 우리는 동경하고 미화하며 선망해 왔다.

혹자는 짝사랑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하기도 하고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을 괴롭히기는 커녕 ‘당신의 행복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라도 기꺼이 떠나주는 게 참 사랑이라 하지 않는가. 소월의 시 ‘진달래꽃’에서 처럼.

어렸을 적 내가 읽은 동화 하나가 평생토록 내 가슴앓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어느 별 한 마리가 나비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나비는 별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꽃동산과 꽃밭으로 꽃만 찾아다녔다. 별은 너무 슬퍼서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몸부림쳤다. 밤하늘에 갑자기 두둥실 떠오르는 둥근 달이 마치 나비의 모습 같아, 별은 하늘로 하늘로 기를 쓰고 높이 높이 날아오르다 그리움의 숨이 차서 그만 찬 밤하늘 창문에 성에 슬듯 달무리로 얼어붙고 말았다.”

또 하나 사춘기 때 읽은 영국 시인 바네임 구지 (Barnabe Googe 1540-1594) 의 시 한 구절이 나를 포함한 수많은 남성들의 가슴을 대변해 오고 있다고 생각된다.

“나는 이 여인이 지나치는 모습 봤을 뿐이지만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이 여인을 사랑할 거야.”
— ‘사랑스럽고 상냥한 여인이 있자’ 에서
“I did but see her passing by, and yet I love her till I die.”
— From ‘There is a Lady Sweet and Kind’

신비롭게도 이 영국 시인의 성(姓)인 구지 (Googe) 는 ‘신(神)의 선물 (Gift of God)’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무조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 받은 지상 최고의 선물이 아니랴.

사람의 성씨와 이름을 뜻하는 성명(姓名)의 ‘성(姓)’이 계집 녀 ‘女’ 변에 날 생 ‘生’인 것이 매우 흥미롭다.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생명은 여성에게서 태어나니까 조물주의 신성(神性)은 결코 남성일 수가 없고 여성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은 지난 수천년 동안 뒤집혀 온 우주와 자연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임에 틀림없다. 전쟁과 착취와 폭력을 일삼는 부계사회를 사랑과 양육과 평화를 도모하는 모계사회로 회귀시키는 혁명적인 과업 말이다.

아, 그래서 나도 청소년 시절 소우주 한 송이 코스모스꽃 같은 소녀를 짝사랑하다가 이제 대우주 코스모스를 품게 되었다. 그러니 누군가를 또는 뭔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나 자신, 아니 온 우주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리라.



Compressor Fans

아서 maintenance가 적을 뿐더러 성능이 뛰어나므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것은 매우 가능한 일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회사의 모토가 “정직한 제품 생산”이고 “사업 목표가 100조 원”이라고 사무실의 로비에 써 있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면 이현석 동문은 세계 굴지의 기업인이 될 것이다. 그동안

시카고 동문들의 희생적인 노력이 서울대인의 귀감이 될 만 하다. 우리 서울대인은 동문이 어려움에 처할때 도움을 주는 것으로 그 동창회의 설립 취지가 있는것으로 이제 구속 생활을 청산하게 될 이현석 동문을 따뜻하게 환영함이 매우 마땅하다.

세상을 바꾸는 나눔의 시작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 소식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서울대학교에 기부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은

서울대학교의 공식 모금기관입니다.

주요 기금

주중광·허지영 약학대학 20동 건축 및 시설확충 기금 주중광(약대 60입), 허지영(문리대 66입) 동문 부부가 모교의 약학대학이 세계 최고 연구 기관이 되기를 바라며, 약학대학 건축 및 시설확충 기금으로 약 204만 달러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유인경 기금교수기금 광노섭 동문(문리대 49입)은 부인故 유인경(의대 59졸)동문을 추모하며 91만 달러를 기부하였습니다.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에 유인경 기금교수직을 설립해 2017년부터 매년 3만 달러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수 수의과대학 장학기금 및 위임기금 박종수 동문(수의대 58입)은 모교 수의과대학의 발전을 바라시며 장학기금과 위임기금 등 약 77 만 달러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생명공학연구동 건립기금 및 동물병원 신축기금 익명의 동문 부부는 모교 수의과대학의 연구 및 시설 개선을 위해 생명공학연구동 건립기금과 동물병원 신축기금 등 총 70만 달러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김기태·노정옥 장학기금 및 김기태 병리학 기금故 김기태 동문(의대 58졸)은 의과대학 장학금과 병리학 연구를 위해 50만 달러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김용재 박사 장학기금 김용재 동문(의대 60입)은 모교 의과대학 후배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50만 달러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김현 의과대학 병리학기금 김현 동문(의대 60입)은 모교 의과대학의 연구 역량을 제고하고 세계 최고의 의료교육기관으로 발전하기를 염원하며 의과대학 병리학 기금으로 50만 달러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선한 인재 장학금 서울대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매월 30만 원(\$300)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주재단을 통해 총 29명의 동문들이 총 40만 달러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오세경 약학대학 장학기금 오세경 동문(약대 61입)은 모교 약학대학 후배들을 위해 2005년부터 꾸준히 약 40만 달러를 약학대학 장학금으로 기부하였습니다. 장학금 외에도 의학사 및 과학사 관련 도서를 중앙도서관에 기증하였습니다.

이홍표 순환기내과 연구 및 교육기금 이홍표 동문(의대 58입)은 의과대학 순환기내과의 연구 및 교육 발전을 위해 30만 달러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김익신 학술기금 김익신 동문(의대 60입)은 의과대학 핵의학교실 학생들의 장학금과 핵의학 연구 분야 발전을 위해 총 26만 달러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정인식·박숙자 도서관 시설환경개선 기금 정인식 동문(상대 58입)은 중앙도서관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이 이용하는 지성의 중심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중앙도서관 시설환경개선에 17만 달러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홍진(서진) 선한 인재 장학금 홍진 동문(간호대 56입)은 모교에 빛을 감을 계기를 찾고 있던 중 선한 인재 장학금 캠페인 소식을 접하고 2015년부터 총 15만 달러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황산덕 장학기금 송학린 동문(법대 59입)은 재학시절 법과대학 황산덕 교수님이 베푸신 온정에 보답하기 위해 총 12만 달러를 기부하여 황산덕 장학기금을 설립,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노명호 건설환경공학부 장학기금 노명호 동문(공대 61입)은 모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건설환경공학부) 후배들이 학업에 정진 할 수 있도록 장학금 10만 달러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이만택·이안나 장학기금 이만택 미주재단 이사장(의대 52입)은 모교 의과대학 후배들의 장학금을 위해 10만 달러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이병준 서울대 발전기금 이병준 동문(상대 55입)은 서울대학교의 안정적인 법인화 추진 및 교육·연구 역량 제고와 인재양성을 위해 10만 달러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최덕순 장학기금 최덕순 동문(간호대 59입)은 간호대학 학생들이 선한 간호전문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10만 달러를 간호대학 장학금으로 기부해 주셨습니다.

홍병각 금융경제연구원 학술기금 홍병각 동문(문리대 55입)은 금융경제 연구원의 학술 및 연구 발전을 위해 10만 달러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수경 희망 장학기금 김수호(공대 70입), 박경희(간호대 71입) 동문 부부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의 학업 지원을 위하여 공과대학 재료공학부와 간호대학 장학금으로 9만2천 달러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최애옥 장학기금故 최애옥 동문(간호대 50입)은 유산 중 약 9만2천 달러를 간호대에 기부토록 유증하였고 유가족들이 이를 받들어 2015년 간호대학에 최애옥장학기금이 설립했습니다.

지원단위별 기부금 지원 현황 (USD)			
지원기관	지원금액	지원기관	지원금액
서울대학교	141,200	법과대학/법학대학원	50,000
사회과학대학	132,000	수의과대학	470,500
자연과학대학	21,800	약학대학	2,202,550
간호대학	144,930	의과대학 (의학도서관 건립기금 포함)	576,370
경영대학/경영대학원	22,000	중앙도서관	256,000
공과대학	414,000	서울대병원	180,000
총 계		4,611,350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은 연방국세청(IRS)의 면세승인 비영리기관(501-C-3)으로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을 통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시면서 서울대학교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유증 등에 대한 기부문의를 상담해 드립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Y.]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L.A.] 2410 W. James M.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 212-768-9144 Fax : 212-768-4494 E-mail : kenneth@klcpagroup.com

Tel : 213-435-1974 E-mail : america@snu.ac.kr

참여 협력 영광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 978-835-0100 | F 978-353-1882

www.snuaa.org
email: general@snuaa.org

제16대 (임기 2021. 7 ~ 2023. 6) 회장 후보 추천 공고

서울대 미주동창회에서는 미주에서 활동하시는 동문 회원 중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실 차차기 회장 – 제16대 동창회장 (임기 2021. 7 ~ 2023. 6) 후보자 추천을 서울대 미주동창회 정관 및 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6일

서울대 미주동창회 인선위원장 손재옥 (제13대 회장)

연락처: 손재옥 전회장 (267-736-2992) | 윤상래 회장 (978-835-0100) | 신응남 차기회장 (646-523-9606)

제16대 회장 (임기 2021. 7 ~ 2023. 6) 선거일정 및 근거규정

- 선거일정: a. 2018년 12월 31일: 회장 후보 추천서 접수마감
b. 2019년 6월 혹은 7월: 전국평의원회의 (정기총회)에서 투표: 차차기회장 확정
- 근거규정: Nomination Committee (Standing) Rules & Regulations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8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시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 \$200 ☐ \$500 ☐ \$1,000 ☐ \$ ____	☐ \$75 (2018. 7 ~ 2019. 6) ☐ \$150 (2018. 7 ~ 2020. 6) ☐ \$3,000 (중신이사회비)	☐ \$240 (2018. 7 ~ 2019. 6) ☐ \$480 (2018. 7 ~ 2020. 6) 일반 광고 문의: general@snuaa.org	☐ Scholarship Fund (장학금) \$ ____ ☐ Charity Fund (나눔) \$ ____ ☐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 ☐ 모교발전기금 \$ 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중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el: 978-835-0100 Email: general@snuaa.org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서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				

업소등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1, 2차 회기: 2017. 7. 1 ~ 2019.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전희장단 이월금

47,347.11
(11/29) 6,511.97

총동창회 보조금

3,000

총동창회 오찬 협찬

3,000

업소상 광고비

강호석 (상대 81) 240
김원택 (공대 65) 240
김일영 (의대 65) 240
김창수 (약대 64) 240
김 풀 (수의 81) 480
남옥현 (경영 84) 480
독고원 (공대 65) 240
박종호 (의대 79) 240
서동영 (사대 60) 480
석창호 (의대 66) 240
신통국 (수의 76) 480
신응남 (농대 70) 240
신혜원 (사대 81) 240
염달용 (공대 69) 240
염달용 (농대 74) 240
윤세웅 (의대) 240
이경림 (상대 64) 720
이병준 (상대 55) 480
이종모 (간호 69) 240
이준영 (치대 74) 240
정정수 (수의 74) 240
정재원 (공대 64) 480
주기목 (수의 68) 240
지흥민 (수의 61) 240
아주관광 Discount 상품권 협찬

광고비

DUO Info. 1,200
DUO Info. 400
DUO Info. (10) 400
DUO Info. (11/6) 400
DUO Info. (12/8) 400
DUO Info. (1/9) 400
DUO Info. (2/8) 400
DUO Info. web (2/23) 500
DUO Info. (4/2) 400
DUO Info. (4/30) 400
DUO Info. (6/11) 400
DUO Info. (9/5) 400
DUO Info. (10/9) 400
DUO Info. (11/14) 400
JayoneFood (1/22) 1,800
KCNews.net (8/15/18) 200
KCNews.net (11/5/18) 425
KISS (1/17) 3,000
NY Golf (6/18) 1,000
NY Golf (8/9/18) 1,000
NY Golf (8/31/18) 1,000
SeAh 이병준 1,500
SNUAA, Inc (남가주) 500

SNUAA, Inc (남가주) 700
T. H. & Asso. 1,000
김승호 (공대 71) 400
김민중 (181105) 700
노명호 (공대 61) 1,000
발전기금 (12/6) 700
서울대병원 강남 (12/29) 1,500
서울대병원 강남 (5/30) 380
서울대병원 강남 (8/31) 380
서울메디칼 (3/15) 1,000
손재옥 (가정 77) 500
신응남 (농대 70) 1,200
심완섭 (의대 67) 1,800
한남체인(3/15) 1,000

나눔

김창희 (미대 65) 25
윤상래 (수의 62) 500
윤영자 (미대 60) 100
이건영 (문리 71) 50
황선희 (공대 74) 100

모교발전기금

권기현 (사대 53) 1,000
권철수 (의대 68) 100
심상은 (상대 54) 25
유재환 (상대 67) 125
윤상래 (수의 62) 2,100
윤우용 (공대 63) 500
오인환 (문리 63) 200
임종식 (의대 51) 1,000
정동구 (공대 57) 500
정태광 (공대 74) 200

브레인 네트워크 후원금

서동영 (사대 60) 200
신응남 (농대 70) 200
오인환 (문리 63) 200
윤상래 (수의 62) 6,000
이병준 (상대 55) 1,000
정창동 (간호 45) 100
한재은 (의대 59) 500

수재민 돌기 후원금

윤상래 (NE) 300
정정욱 (NE) 200
고일석 (NE) 200
김문소 (NE) 100
김연택 (응대 68) 200
신응남 (NY) 200
손재옥 (PA) 1,000
황선희 (PA) 200
합계: 2,400

장학금

김기형 (경영 75) 125
김동훈 (법대 56) 100
김은섭 (의대 53) 100
김현학 (의대 57) 100
박원준 (공대 53) 300
박용걸 (약대 56) 150

백원일 (농대 70) 500
신규원 (공대 64) 100
신응남 (농대 70) 300
심상은 (상대 54) 100
오인환 (문리 63) 650
유재환 (상대 67) 100
윤상래 (수의 62) 5,600
이건일 (의대 62) 125
이원섭 (농대 77) 100
임필순 (의대 54) 100
전방남 (상대 73) 200
전성자 (사대 52) 500
전영자 (미대 58) 350
정진수 (공대 56) 425
조형원 (약대 50) 500
최수강 (의대) 100

지부 분담금
(2018/7~2019/6)

알라스카 200

후원금

남가주

김 영 (수의 63) 500
김영준 (응대 59) 600
김원택 (공대 65) 400
김민중 (농대 74) 25
김일영 (의대 65) 200
김재영 (농대 62) 240
김종표 (법대 58) 500
김진형 (문리 55) 1,500
김창신 (사대 75) 100
노명호 (공대 61) 3,000
문석면 (의대 52) 200
민수봉 (상대 55) 25
박인창 (농대 65) 100
박종수 (수의 58) 2,100
방석훈 (의대 55) 200
백준하 (응대 71) 600
유종민 (공대 64) 200
유재환 (상대 67) 200
유창호 (약대 74) 300
이건일 (의대 62) 300
이명선 (상대 58) 500
이범모 (치대 74) 200
이범식 (공대 61) 400
이병준 (상대 55) 11,000
이영준 (치대 63) 400
이영일 (문리 53) 200
이현찬 (치대 75) 200
임창희 (공대 73) 100
전경철 (공대 55) 400
전희택 (의대 58) 200
정교희 (의대 66) 200
정동구 (공대 57) 500
정재훈 (공대 64) 270
정희영 (치대 58) 100
조한원 (의대 57) 100
최은관 (상대 64) 300
하기환 (공대 66) 200
하선호 (치대 81) 200

북가주

김정수 (문리 62) 125
김윤범 (의대 54) 200
김정희 (응대 56) 200
이성형 (공대 57) 150
한상봉 (수의 67) 240

뉴욕

강에드 (사대 60) 400
곽선식 (공대 61) 100
곽승용 (의대 65) 200
김명철 (공대 60) 200
김병숙 (보건 65) 200
김승호 (공대 71) 200
김재경 (농대 58) 200
문석면 (문리 52) 200
박두선 (공대 68) 100
박성원 (문리 54) 40
방준재 (의대 63) 200
배명애 (간호 47) 225
배정희 (사대 54) 200
서 랑 (의대 63) 200
신응남 (농대 70) 2,000
양거명 (약대 49) 25
이경림 (상대 64) 185
이윤순 (의대 52) 525
이전구 (농대 60) 1,100
이재원 (법대 60) 350
이준행 (공대 48) 3,000
전재우 (공대 61) 200
정민식 (상대 58) 200
정창동 (간호 45) 75
조명애 (간호 47) 375
조정현 (수의 58) 100
최한원 (농대 58) 500
허선형 (의대 58) 400
허유선 (가정 83) 100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2,000
김문소 (수의 61) 80
김병국 (공대 71) 65
김선혁 (약대 59) 100
김은환 (의대 60) 1,250
김정환 (공대 52) 200
김재호 (공대 56) 100
송미자 (의대 62) 65
윤상래 (수의 62) 40,800
윤영자 (미대 60) 100
이의인 (공대 68) 1,100
이재신 (공대 57) 2,000
이희규 (공대 69) 200
전신익 (수의 25)
정선주 (박영철) 3,000
정정욱 (의대 60) 1,400
정태영 (문리 71) 600
정철수 (간호 66) 65
최선희 (문리 69) 200
최홍균 (공대 69) 2,000

라스베가스

윤우용 (공대 65) 500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2,000

텍사스

이석호 (공대 78) 200
최충훈 (문리 59) 200

샌디에고

김군빈 (법대 56) 75
박우선 (공대 57) 200
임준수 (의대 57) 200

시카고

강영국 (수의 67) 200
구영서 (공대 69) 100
김연택 (응대 68) 150
오봉환 (법대 52) 260
이홍락 (공대 48) 1,000
임근식 (문리 56) 500
조형원 (약대 50) 500
최희수 (문리 67) 75
홍혜례 (사대 72) 225

아리조나

박양세 (약대 48) 200
지영환 (의대 59) 200
진영규 (공대 70) 100

오레곤

김상순 (상대 68) 500
송재용 (의대 69) 200

오하이오

김동광 (공대 62) 50
성홍완 (수의 75) 200
송용재 (의대 63) 200

워싱턴 DC

강길종 (약대 69) 200
권철수 (의대 68) 200
박용철 (약대 56) 200
박광일 (농대 69) 600
백 승 (법대 58) 200
서윤석 (의대 62) 300
신상균 (의대 52) 500
오인환 (문리 63) 200
유영준 (의대 70) 200
이은하 (공대 46) 100
이영목 (공대 59) 200
이인국 () 25
장요환 () 100
최준호 (공대 60) 25
한익생 (수의 60) 200

워싱턴 주

하주홍 (경영 77) 25

조지아

백성식 (약대 58) 75
주중광 (약대 60) 2,000
허지영 (문리 66) 2,000

필라델피아

김영남 (의대 61) 200
김태환 (법대 48) 200
김현영 (수의 58) 100
배성호 (의대 65) 100
서경희 () 100
사중민 (공대 64) 350
손재옥 (가정 77) 500
송영두 (의대 56) 700
신상식 (공대 56) 200
이만택 (의대 52) 200
이상숙 (가정 74) 250
제갈은 (문리 59) 150
전무식 (수의 61) 200
주기록 (의대 68) 200
조정현 (수의 58) 500
조영진 (응대 64) 150
지흥민 (수의 61) 400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200
전영자 (미대 58) 50

캐네티컷

김기훈 (상대 52) 600
유시영 (문리 68) 500
유시영 (문리 68) 200

케롤라이나

한광수 (의대 57) 400

하와이

김승태 (의대 57) 600

하트랜드

오명순 (가정 69) 500
이상국 (의대 70) 10,000
최은관 (상대 64) 300

휴스턴

김욱균 (공대 54) 200
진기주 (상대 60) 500
최영기 (공대 63) 200

(강영빈 동문 후원금 \$2,000은 모교 동물학과, 생물학과 58 학번 동문 이 요청하면 동창회비를 대납해 드리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종신 이사비 (\$3,000 이상 / 71명)

골드 종신 이사 오인석 (법대 58) 남가주 강신용 (사대 73) 김재영 (농대 62) 노영호 (공대 61) 박명근 (상대 63) 박윤수 (문리 48) 박종수 (수의 58) 방명진 (공대 73) 서동영 (사대 60) 서영석 (의대 55) 서지원 (공대 69) 심상은 (상대 54) 심화섭 (약대 61) 오재인 (치대 33) 오홍조 (치대 56)	이병준 (상대 55) 이세열 (사대 57) 이종도 (공대 66) 이정광 (상대 61) 이홍표 (의대 58) 임낙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희택 (의대 60) 재영혜 (가정 71) 조용원 (문리 66) 차충현 (사대 54) 한귀희 (미대 68) 현종택 (공대 60) 한효동 (공대 58) 북가주 김정희 (음대 56)	뉴욕 김광호 (문리 62) 오인석 (법대 58)* 윤정옥 (약대 50) 이기영 (농대 70) 이친구 (농대 60) 이재덕 (법대 60) 이준형 (공대 48)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김문소 (수의 61) 박경민 (의대 53) 박영철 (농대 64) 오세경 (약대 61) 윤상래 (수의 62) 윤선홍 (지대 64) 정선주 (간호 68)	루이지애나 강영범 (문리 58)* 미네소타 남세현 (공대 67) 조형준 (문리 62) 시카고 남상용 (공대 52) 이윤락 (공대 48) 정 태 (의대 57) 한재은 (의대 59) 오하이오 김용현 (경원 66) 워싱턴 DC 강연석 (사대 58) 권기현 (사대 53)	류재용 (법대 60) 방은호 (약대 43) 오인환 (문리 63) 중부텍사스 이광연 (공대 60) 조지아 주중광 (약대 60) 허지영 (문리 66) 필라델피아 서중민 (공대 64) 손재욱 (가정 77) 이만택 (의대 52) 추기목 (수의 68)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하트랜드 김경숙 (가정 70) 김명자 (문리 62) 이교락 (의대 53) 이상강 (의대 70) 휴스턴 박태우 (공대 64) 조시호 (문리 59) - 종신이사 (교인) - * 표: 현반이상 내신 분
--	--	--	--	---	--

동창회비 (2차 회기: 2018. 7. 1 ~ 2019.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표: 차기 1차 회기까지 내신 분

남가주 S.CA/NV 강경수 (법대 58) 강동훈 (법대 59) 강윤희 (간호 46) 강정훈 (미대 56) 강종경 (공대 48) 강종재 (상대 53) 권기상 (경영 72) 권영달 (문리 50) 권영태 (의대 57) 김건진 (문리 62) 김광은 (음대 56) 김동산 (법대 59) 김동훈 (법대 56) 김병환 (공대 58) 김상찬 (문리 65) 김석훈 (법대 59) 김선기 (법대 59) 김순자 (치대 57) 김순덕 (간호 61) 김영 (수의 63) 김영희 () 김영호 (음대 59) 김원경 (악대 59) 김원택 (공대 65) 김원호 (악대 63) 김윤경 (가공 60) 김의신 (의대 60) 김인준 (농대 74) 김진표 (법대 58) 김준일 (공대 62) 김진석 (공대 66) 김진철 (문리 55) 김창무 (음대 53) 김태윤 (법대 53) 김태호 (상대 57) 김희재 (사대 66) 김희창 (공대 64) 나두성 (의대 66) 나민주 (음대 65) 나승호 (문리 59) 노영호 (공대 61)* 문종호 (문리 59) 문병호 (법대 51)* 문인일 (공대 51) 박대균 (수의 57) 박명근 (상대 63) 박부강 (사대 64) 박우성 (사회 77) 박원준 (공대 53) 박인수 (농대 64)* 박인창 (농대 65) 박임하 (치대 56) 박창규 (악대 59)* 박창선 (공대 55) 박취서 (악대 60) 박태호 (치대 66) 박호현 (의대 52) 변영근 (수의 52) 배동환 (공대 65) 배병욱 (음대 58) 백원일 (농대 71) 백학하 (미대 70) 서동영 (사대 60) 서명희 (농대 67) 서영석 (문리 61) 성주경 (상대 68) 손기석 (의대 55) 송하영 (공대 50) 송성균 (공대 50) 신동국 (수의 76) 신상화 (공대 58) 신영찬 (의대 63) 신정식 (상대 64)* 신상은 (상대 54) 안병일 (의대 63) 안영택 (의대 58) 양찬주 (상대 54)	양태준 (상대 56) 염동해 (농대 74) 오선웅 (의대 63) 오승자 (사대 59) 오양숙 (간호 60) 유덕훈 (상대 48) 유석훈 (상대 61) 유재환 (상대 67) 유경민 (법대 55)* 유석철 (상대 60) 윤용길 (공대 55) 유재창 (의대 57) 이건영 (문리 71)* 이건일 (의대 62) 이근원 (공대 67) 이기재 (사대 52)* 이방기 (농대 59) 이법식 (공대 61) 이병준 (상대 55) 이서희 (법대 70) 이성숙 (공대 56) 이소희 (의대 61)* 이영일 (문리 53) 이영현 (간호 70)* 이원익 (문리 73) 이은경 (간호 80) 이익상 (사대 58)* 이장길 (치대 63) 이정희 () 이정근 (사대 60) 이준호 (상대 65) 이종도 (공대 66) 이재권 (법대 56) 이재룡 (공대 71) 이재선 (농대 58) 이창무 (공대 54) 이현광 (상대 61)* 이현창 (치대 75) 임동규 (미대 57) 임동호 (악대 55) 임문빈 (상대 58) 임화식 (치대 59) 장인숙 (사대 54) 장인숙 (간호 70) 전정철 (공대 55) 전낙관 (사대 60)* 전상욱 (사대 52) 전규희 (의대 66)* 전동규 (공대 57) 전동주 (가정 72) 전재훈 (공대 64) 전철홍 (의대 55) 전형민 (문리 71) 전형재 (상대 69) 정 황 (공대 64) 전희영 (치대 58) 조동준 (의대 57) 조만연 (상대 58) 조순자 (치대 57) 조성지 (공대 60) 조재길 (사대 61) 조태준 (문리 59) 조한원 (의대 57) 주정래 (상대 65) 지인수 (상대 69) 차민영 (의대 76) 최경자 (악대 63) 최영순 (간호 69) 최용완 (공대 57) 최종권 (문리 59)* 최희용 (공대 59)* 하기환 (공대 66) 한동수 (의대 60) 한병용 (문리 71) 한종철 (치대 62) 홍석관 (사대 47) 홍선례 (공대 70) 홍선일 (공대 71) 홍수용 (의대 59) 황선주 (간호 69) 홍 진 (간호 56)	●●●●●●●● 북가주 SAN FRANCISCO 강일성 (상대 55) 강재호 (상대 57) 권오형 (사대 61)* 김병호 (상대 57) 김영식 (상대 62) 김정복 (사대 55) 김정자 (사대 51) 김경희 (음대 56) 김현광 (공대 64) 김희봉 (공대 68) 민병근 (공대 65) 박경용 (악대 63) 박사규 (법대 56) 박성수 (공대 59) 박종성 (법대 53) 박종길 (상대 52) 박찬호 (자연 81) 부영무 (치대 72) 송창진 (공대 69) 송영훈 (상대 57) 신규영 (공대 64) 안병철 (공대 58) 안현수 (상대 67)* 윤성희 (사대 58) 윤기철 (의대 65) 이강우 (문리 59) 이성환 (공대 57) 이현숙 (사대 62) 이홍기 (공대 62) 임정란 (음대 76) 전병현 (공대 54) 전혜경 (문리 67) 정규남 (공대 52) 정양자 (문리 59) 정유석 (의대 58) 정진수 (공대 56) 최경선 (농대 65)* 박태숙 (문리 54)* 황동하 (의대 65) 황만익 (사대 59)	●●●●●●●● 뉴욕 NY/NY 강교숙 (간호 73) 강영선 (공대 50)* 강재도 (사대 60) 계동휘 (치대 67) 고광호 (악대 56) 고순정 (간호 69) 공화삼 (농대 64) 권문용 (미대 61) 권영근 (상대 60) 곽노섭 (문리 49) 곽삼준 (악대 55) 곽선식 (공대 61) 곽승용 (의대 65) 김종순 (상대 59) 김광현 (치대 57) 김명숙 (상대 65) 김문경 (악대 61) 김병권 (문리 63) 김병숙 (보건 65) 김보성 (악대 52) 김보상 (법대 52) 김성현 (악대 56) 김세환 (공대 65)* 김승호 (공대 71) 김영무 (공대 75) 김영무 (사대 56) 김영철 (의대 55) 김영희 (간호 53) 김원주 (의대 54) 김유순 (간호 64) 김윤수 (상대 50) 김용원 (문리 63)*	김정희 (간호 69) 김창수 (악대 64) 김태일 (공대 68) 김태홍 (의대 56) 김현중 (공대 63) 김훈일 (공대 60) 김희자 (미대 66) 류재룡 (공대 58) 서문면 (의대 52) 민발식 (의대 60) 박기인 (공대 60) 박수안 (의대 59) 박순영 (법대 56) 변영철 (악대 54) 박준재 (의대 63) 배영애 (간호 47) 배상규 (악대 61) 배지현 (사대 54) 서 랑 (의대 63)* 석창호 (의대 66) 신성철 (의대 57) 성기호 (악대 57) 손갑수 (악대 59) 송경희 (사대 59) 송영우 (사대 64) 송승길 (대원 69) 신동원 (공대 60) 신준희 (간호 53) 안태홍 (상대 65) 오민근 (악대 52) 우대식 (문리 57) 우상영 (상대 55) 유영호 (의대 52) 유현숙 (공대 65) 유재삼 (문리 58) 육순재 (의대 63) 윤봉균 (사대 54) 윤영선 (의대 57) 윤종숙 (악대 66)* 윤 철 () 윤현하 (공대 64)* 염국용 ()* 이강국 (공대 70) 이강홍 (상대 60) 이경림 (상대 64) 이경태 (공대 63) 이국진 (사대 51) 이대영 (문리 64) 이상우 (의대 56) 이양숙 (간호 56) 이운소 (의대 52)* 이유성 (사대 57) 이재원 (법대 60) 이정은 (의대 58) 이성창 (상대 57) 이종환 (법대 51) 이종형 (공대 48) 이준호 (의대 63) 이태만 (의대 61) 이혜정 (악대 62) 임국재 (의대 61) 전병삼 (악대 54)* 전성진 (사대 54)* 전성성 (간호 77) 전진식 (상대 58) 전정용 (의대 70) 전장동 (간호 45) 조광조 (가정 71) 조남천 (사대 59) 조경애 () 조명애 (간호 47)* 조종수 (공대 64) 조종원 () 62) 차국만 (상대 56) 최구진 (악대 54) 최영태 (문리 67) 최종진 (의대 55) 최진영 (의대 54) 최환용 (농대 58)* 최희무 (법대 69) 한병용 (문리 71)	한영수 (의대 61) 한태진 (의대 58) 허병렬 (사대 42) 허선형 (의대 58) 허유선 (가정 83) 현영수 (음대 61) 홍성경 (의대
---	--	--	---	--	---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광고
Pancom 광고기획 김영민 (농대 72) Tel:(213)427-1377 / youngkim@pancom.com 3701 Wilshire Blvd. #800, LA, CA 90010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poration 김경무 공인회계사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81), 김낙구(상대67), 강동순(법대59) Tel. (213) 380-5060(LA), (714) 530-3630(Garden Grove, CA)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 Associates, AC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272-2460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os Angeles, CA 90010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윤승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 / 광관도매) 이병준 (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OR 오래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Haitai Inc. 정정우 (수의 74) Tel.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dr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안내과.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KMAX 유창호(약대 74) Tel. 213-381-3200 814 S. Alvarado St. LA. CA 90057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Seoul Medical Group ★ 차민영 (의대 76) Tel: 213-480-7770 (877) 764-1405 520 S. Virgil Ave.#103 LA, CA 9000
나성약국 ★ 임낙균 (약대 64) Tel: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A. CA 90006
치과
광고주를 모집니다.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jchung@taycoeng.com
 www.taycoeng.com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O) (818) 514-6780 (M) (818) 720-2373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Jennie Lee 이종모 (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lee2@gmail.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el. 213-381-3610
 2740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6

기타

Turbo Air, Inc. ★
서치원 (공대 69)
 Tel.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CA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치선(상대 58)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 2makes1.com / 1durihana@gmail.com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Tel. (404) 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Wesley & Associates, CPA 윤태우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PA 필라델피아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ASSI Plaza)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건축 Timothy Haahs & Assoc. 손재욱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NY / NJ (뉴욕 / 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el. (201) 666-2828 570 Piermont Rd, Closter Commons # C1, Closter, NJ 07624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내과 백승원 위장내과 ANDREW S. BAIK M.D. 백승원 (의대 73) Tel. (201) 302-9774, (732) 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Tel: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석창호 위장내과 Chang Ho Suk, M.D. 석창호 (의대 66) Tel.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 27, Flushing, NY 11355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이창석 내과 Chang Suk Lee, M.D. 이창석 (의대 72) Tel. (718) 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재활의학 김치갑 카이로프랙 COMPREHENSIVE PAIN THERAPY CENTER 김치갑 (의대 73) Tel. (201) 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김승관통증 및 재활의학병원 Seung K. Kim, M.D. 김승관 (의대 70) Tel. (718) 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비교기와 윤세웅 비교기와 Richard Sei-Oung Yoon, M.D. Ph.D. D.D. 윤세웅 Tel. (718) 335-3333 75-21 Broadway #1, Elmhurst,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MD·VA·워싱턴 DC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알리지 이혁엽 알리지 전문의 Hyok Yup Lee, M.D. F.A. 이혁엽 (의대 73) Tel. (201) 568-3800, (718) 321-7366 385 Sylvan Ave. E.C., NJ 07632 144-24 37th Ave. Room#LD Flushing, NY 11354	엔지니어링 컨설팅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el. (703) 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소아과 박범열 소아과 Beum Yul Park, M.D. 박범열 (의대 75) Tel. (718) 229-1188, (718) 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박종호 소아과 C. Thomas Park, M.D. 박종호 (의대 79) Tel. (201) 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Rd.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lan.com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 (보건대 69) Tel. (718) 353-6207 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광고주를 모집니다. 광고주를 모집니다.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 81) Tel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일주! 당신이 꿈꾸는 모든 여행이 가능합니다!
MD·VA·워싱턴 DC 식품 / 음식점	5대양 6대주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 전세계 파트너쉽으로 어느곳이든 이주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본사지원과 현지가이드의 입체시스템. 믿음직한 동행과 함께하세요. 33년 이상 전문성과 노하우 어느곳이든 5스타급 서비스와 가이드 usajutour.com 213-388-4000
우래옥 백행남 (문리 60) Tel.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문의: D.C. 상풍권 백옥자 (Jace Lee) 213-388-4000, 818-395-1967

KCC News kccnews.net
 The Korean Christian Community News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과 크리스천 문화활동을 취재보도하는 **Internet Media.**
 각 지역 서울대 동문들의 문화활동 계보 바랍니다.

남미, 아프리카등 9개국 선교지 12회 방문취재

권문웅(미대 61-디자인) moonk206@gmail.com T.973.600.0834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8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A4 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ua.org 로 보내주십시오.
<편집부>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4대 미주동창회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역대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희조 (치)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중 (상) 오인환 (문) 명예회장: 손재욱 (가정)
제14대 회장: 윤상래 (수)
차기회장: 신응남 (농) Brain Network 공동 부회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강명구 (문), 김병국 (공) 고문: 고일석 (보), 김은한 (의), 정정욱 (의), 김문소 (수) Corporate Counselor: 신응남 (농)
집행부
본부 부회장: 장수인 (음) 사무총장: 이상운 (수) 재무 국장: 김제성 (공) 총무 국장: 이진희 (수) 총무: 배지선 (수), 총무보: 강은주 IT Consulting Team 업무 국장: 정선주 (간) 섭외 국장: 윤용훈 (공) 홍보 국장: 이영인 (사)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특별 사업국장: 허유선 (가정)
회보 발행인: 윤상래 (수), 고문: 김은한 (의)
편집장: 김원영 (미), 편집 고문: 정태영 (문) 편집 위원: 윤용훈 (공), 홍선례 (음), 정태영 (문), 이정수 (공), 백옥자 (음) 이영인 (사), 장수인 (음), 김제성 (공), 이상운 (수), 이진희 (수) 허유선 (가정), 한정민 (농), 배지선 (수)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허유선 (NY), 한정민 (DC)
IT 위원회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강영국 (수), 정태영 (문), 박광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김용현 (경),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풍 (법), 이석구 (문), 이원영 (사), 이채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회칙 위원회: 위원장 조화연 (음)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 이민연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위원회: 위원장 이상강 (의)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중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장학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수), 공동 위원장: 김용구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포상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감사: 김명승 (상), 박영철 (농)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강신용 (사대 73)	213-380-1600	aamkocpa@gmail.com	Feb-Jan
	차기회장	한귀희 (미대 68)	805-300-7977	khahn@4apec.com	
북가주 SANFRANCISCO	회장	곽준경 (법대 75)	650-656-7683	joon.kwa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뉴욕 NY/NJ	회장	손대홍 (미대 79)	201-388-4700	sohn6305@gmail.com	July-Jun
	차기회장	조상근 (법대 69)	201-913-0565	amcoinc@msn.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윤은상 (상대 66)	978-886-5989	eunsang_yoon@uml.edu	Jul-Jun
	차기회장	이강원 (공대 66)	401-369-1565	kwaynelee@gmail.com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이석호 (농대 78)	214-244-3630	iseoko@gmail.com	Jan-Dec
		강성호 (수의 81)	214-215-4447	oah9999@yahoo.com	
록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문 (공대 77)	480-209-9992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황효숙 (사대 65)	651-308-0796	sook@nano-dyne.com	Jan-Dec
	차기회장	송세진 (치대 78)	612-423-1055	sejinsong@gmail.com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이재봉 (인문 88)	760-585-8396	jebong20@yahoo.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홍혜례 (사대 72)	773-896-7987	hyerye.ho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김송주 (간호 69)	630-341-1943	seungjoochang@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yoon@hotmail.com	
오레곤 OR/ID	회장	김기린 (사대 75)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정명희 (공대 71)	301-661-9227	paulchung5@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류성렬 (공대 72)	425-786-4766	stiinc94@gmail.com	Jan-Dec
	총무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섭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주지영 (문리 66)	706-338-4520	jane.chu.ga@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공영식 (사대 79)	770-880-5816	youngskong@yahoo.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전무식 (수의 61)	267-242-5097	msjeon41@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조정현 (수의 58)	856-685-9762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정치영 (법대 76)	305-665-1961	cychyu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캘리포니아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a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IA/MO/KS/NE/AR/OK	회장	이지현 (약대 77)	913-814-9452	leech@umkc.edu	Sep-Aug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동 (상대 70)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 (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종욱 (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일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아이도 좋아하는 싱글맘,
이제 좋은 짝만 있으면 되겠조?

결혼해 듀오

DUO USA 3701 Wilshire Blvd. #1122, Los Angeles, CA 90010

매 듀오
LA 213-383-2525

jayone.com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 하겠습니다!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 74)

www.jayone.com

Since our founding in 2000, Jayone Foods, Inc. has always maintained the sole mission of sharing our passion for Asian Food - especially Korean food. With so many bold flavors, vivid colors, and countless health benefits, it would be a shame not to spread the word far and wide! As the first company to introduce the idea of enjoying seaweed as a snack, we take pride in our innovation and are always thinking of new and unique ways to bring delicious foods to your table.

In the 18 years since our humble beginnings, Jayone has developed over 700 different food items ranging from fresh produce to frozen goods and you may already be familiar with some of our other brands such as Sea's Gift and Jayone! In addition to our own brands, we've also partnered up with many other brands in our journey to spread the goodness of Asian foods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we believe that good food is a universal lan- guage that everyone can relate to and enjoy no matter who you are.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CAREMAX
PHARMACY

유창호 (약대 74)

Tel. 213-381-3200

814 S. Alvarado St. L.A., CA 90057



서울 메디칼 그룹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환자 한 분 한 분
 진심을 다해 진료합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Dr. 차민영 (의대 76)

5



- ★ 최우수 등급 5스타 메디칼 그룹
- ★ 아주 빠른 전문의 허가 (리퍼)
- ★ 미주 최대 규모 한인 의료기관
- ★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서비스
- ★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평점 별 5개 최고 점수
 전체 가입자 4만명 돌파!

★★★★★ 최고 점수! 최고 메디칼 그룹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
 더 건강해 지세요.**

항상 '사람이 먼저' 라는 생각으로 환자 분들의 회복을 위해 진심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함께하는 메디칼 그룹, **서울 메디칼 그룹**은 앞으로도 한인 커뮤니티와 **시니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며 계속해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 지금보다 더 오랫동안 **건강**해 지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213.389.0077 • 213.800.3852 • 1.800.611.9862 | 520 S. Virgil Ave., #107, Los Angeles, CA 90020

LA 카운티 • 오렌지 카운티 • 다이아몬드바 • 벨리 • 사우스베이 • 산호세 • 시애틀 • 하와이